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논술 파이널

1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1
2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
3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1
4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5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1
6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2
7강 2022학년도 기출문제 1
8강 2022학년도 기출문제 2
9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1
10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2

메가스터디 장진석 논술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1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라)의 필자가 서술하는 현상이 어떤 관점으로 설명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되, (다), (라)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단, (다)는 '정상 가족' 범주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800 ±100자)

(가) 인간은 세계의 온갖 대상들을 특정 범주(category)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다. 어떤 대상을 범주화하려는 이러한 성향은 진화의 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흔히 마주치는 동물들에 대해 '천적', '먹이' 등으로 범주화하는 능력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세계를 범주화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데 비해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선 몇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고전적인 서양철학의 전통에서는, 범주란 엄밀하게 정의되고 상호 구분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전적 관점에서는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하나의 범주는 그 범주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둘째, 본질적 자질 집합을 모두 소유한 구성원만이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본질적 자질을 공유하므로 모든 범주 구성원의 위상은 동등하다. 넷째, 따라서 본질적 자질의 유무를 통해 한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정사각형'이라는 범주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직각인 형태'라는 본질적 자질로 정의된다. 이 자질을 소유한 것만이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정사각형의 지위는 동등하다. 끝으로, 정사각형이라는 범주의 경계는 뚜렷하다. 즉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인 것과 아닌 것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하나는 어떤 범주를 더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참새와 비둘기, 펭귄과 타조는 모두 새 범주에 속하지만 참새와 비둘기는 새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인 데 비해 펭귄과 타조는 몸집이 크고 날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새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범주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이라는 범주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게임에는 보통 경쟁이 있고, 전략이 존재하며, 육체적 기술이 필요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게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육체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한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어떤 공

통 자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의 범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범주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이 등장했다. 첫째, 범주의 구성원들을 함께 묶는 주요 자질들의 집합이 존재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주요 자질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 둘째, 범주의 구성원들은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몇몇 구성원과만 어떤 자질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해당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넷째, 범주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 항목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범주들이 있다.

이때 어떤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범주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다라. 즉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휴식할 때 마시는 음료'에 대해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커피가 매우 전형적인 음료 중 하나지만. 영국에서는 차가 더 전형적인 음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국인이라도 휴식 시간에 매번 커피를 마셨다면 그는 '휴식할 때 마시는 음료'로 커피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건대 A라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 A라는 국가의 국민이 모두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 범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범주의 성격이 어느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태도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나) 한국어의 단어들은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품사로 분류된다.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미'-으니까', '-다' 등)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하는가 아닌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단어가 다른 말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쓰이는가 등이 품사 분류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예컨대 '명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예: 사람이 많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예: 사람이. 사람을). '앞에는 관형어가 올 수 있다'(예: 훌륭한 사람). '다른 명사 앞에 놓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다'(예: 사람 노릇)와 같은 주요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명사로 분류된다. 한편 '관형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를 꾸며 준다'(예: 헌 신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예: 헌이X. 헌을X). '자립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예: 헌이 많다X)와 같은 주요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형사로 분류된다. 예로 든 '사람'과 '헌'은 위에서 언급한 각 품사의 주요 속성들을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간이 화장실'의 '간이'(뜻: 간단하고 편리함)는 어떤 품사에 속할까? 먼저 이 단어는 많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의 X. 간이에X). 아울러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주어 기능을 하지 않는 점에서도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가 필요하다X). 한편 '간이'에 특정 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명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로 설치한 문). 또한 '-성, -용' 등과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데(예: 간이성. 간이용), 이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인 데 비해 관형사는 가지기 어려운 속성이다.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미혼모 자녀들의 해외 입양이 진행되어 왔다. 흔히 해외 입양이 한국전쟁 직후 오갈 곳 없던 전쟁고아들을 대거 선진국으로 보낸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 입양은 한국의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던 1980년대에 가장 많았다. 그 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들이다. 해의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늘어난 요즘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0년에도 국내와 해외를 모두 포함해 입양된 아이들의 90.9%가 미혼모의 자녀들이었으며, 이 중 해외 입양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혼모의 자녀들이었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로, 출산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언급되기도 한다. 결혼을 매개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 가족' 범주의 표본으로 여겨지면서 그 밖의 형태는 '정상 가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혼=출산'이라는 등식이 지나치게 확고한 탓에 결혼 제도 바깥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라) 한국의 언론 매체는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범죄·자살·가정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길 좋아한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 선정적인 뉴스가 속칭 '잘 팔리는' 언론의 속성에 부합한 선택인 샘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를 의심한다. 용의선상에 거론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파정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정신병력 여부다. 용의자로 확인할 증거가 수집돼 특정되면 수사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때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묻는다.

"피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나요?"

"예."

이때 '조현병[1]', '정신병력' 여부를 기사 제목에 굳이 집어넣으면 방화 범죄는 정신질환자 범죄로 뒤바뀐다. 곧 기사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소개된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치솟는다. 이런 뉴스가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소수

의 사례를 전체에 적용한 고정관념임을 보여 준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인구 중 범죄자는 3.1% 수준인 반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자 비중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1) 조현병: 망상, 환각, 사고와 행동의 혼란 따위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적 질환

문제 2

제시문 (마)와 이에 관한 (바)와 (사)를 바탕으로, (아)의 기술혁신 활용(유전자 가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 결론에 입각할 때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자)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800±100자)

(마)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동시에 이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이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변경한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편익을 누리는 동시에 타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윤리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안녕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행위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하는 사회적 행위 및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 석탄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다. 나무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탄은 단순히 학학물질이나 철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증기기관 등의 기계에 연료로 제공됐다. 이는 인류가 주된 에너지원을 나무와 목탄[1]에서 화석 연료로 전환하는 최초의 대규모 에너지 혁명이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 영국은 목탄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어 벌목이 감소하면서 숲의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에서 전기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 방식[2]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이전보다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에는 전통적인 발전소보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일곱 배나 많은 구리가 쓰인다. 일반적으로 구리 채굴은 암석을 폭파한 후 구리를 포함한 광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수백 톤의 암석을 처리해야 겨우 소량의 구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구리 가공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의 물이 소모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폐기물이 발생한다.

1) 목탄 :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키거나 가열하여 만든 연료를 말한다.
2) 친환경 방식 :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사) 서양의 과학이 소개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우산을 쓰는 행위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어, 개화기 선교사들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가 뭇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삼갔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자연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와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여기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 C.)의 진화론은 원래 다양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인데도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스펜서(Spencer. H.)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 등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상을 설명하려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아) 생명과학의 대표적 기술혁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교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희귀성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지고,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온도 변화, 가뭄, 병충해 등에 강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식량 문제도 줄이고, 이미 멸종된 생물을 복원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기술적으로 맞춤형 아기의 출산까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맞춤형 아기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유전자 구성이 선택되거나 변경된 아기이다. 현재까지는 치명적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허용되었으나, 외모나 지능과 같이 개인이 선호하는 특정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유전적 조작을 하는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의 탄생도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자)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려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1]에 대한 투자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보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1) 사회간접자본 :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월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시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인프라 등도 포함된다.

제 1 강 2025학년도 기출1 대학발표 해설

○ [문제1] 채점기준

<table>
<tr><th>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제 1</td><td>※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수험생들은 먼저 제시문 (가)를 통해 범주를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 곧 고전적 관점과 대안적 관점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나), (다), (라)에 서술된 현상이 각기 이 둘 중 어느 관점과 어떠한 점에서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더하여 (다), (라)에 대해서는 제시문 (가) 중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안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범주를 고전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과 생기는 고정관념의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의 관련 범주 및 관련 속성에 대한 설명에 25%를 배점하며, (다)의 관련 범주 및 관련 속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판적 접근에 30%를 배점한다. 제시문 (라)의 경우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되는 내용이 모두 있으며 이들 둘을 모두 추리해야 하므로 35%를 배점한다. 여기에는 비판적 접근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td><td>-</td></tr>
<tr><td></td><td>2. 제시문 (나), (다), (라)에 대한 분석의 근거로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범주에 대한 두 관점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h>특성</th><th>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th><th>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th></tr>
<tr><td>본질적 자질(속성)의 유무</td><td>· 범주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로 정의됨</td><td>·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이 없을 수 있음</td></tr>
<tr><td>구성원 자격의 결정</td><td>· 본질적 자질 집합을 모두 소유한 구성원만이 해당 범주 소속 가능</td><td>· 몇몇 구성원과만 어떤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해당 범주 소속 가능</td></tr>
<tr><td>구성원 간의 차이 유무</td><td>· 모든 범주 구성원의 위상은 동등함</td><td>·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해당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임
·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사람</td></tr>
</table></td><td>-</td></tr>
</table>

		들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범주 경계의 성격	· 본질적 자질의 유무로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파악 가능	· 구성원 자격을 갖는 항목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범주 존재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문 (나)~(라)에서 서술된 현상이 이 중 어느 항목과 관련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그에 더하여 (가)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내용, 곧 대안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범주를 고전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과 생기는 고정관념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다), (라)의 분석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시문 (나)에서는 한국어의 품사 중 명사와 관형사라는 두 가지 범주를 제시하면서, 먼저 각각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사람'과 '헌'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뒤 두 범주 모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의 예시로 '간이'를 들고 있다. 이 '간이'는 명사와 관형사라는 두 품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면서, 동시에 명사의 범주에서는 '사람', 관형사의 범주에서는 '헌'과 비교하여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명사와 관형사가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선 명사와 관형사 범주가 대안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범주에 부합하는 성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속성으로 '범주 경계의 불분명함' 및 '구성원 간에 보다 더 전형적인 것과 덜 전형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전자(관련 관점 포착)에는 5%, 후자 중 두 가지 논점(범주 경계의 불분명성, 전형적 범주 구성원의 존재)에 각기 10%씩 배점한다.

25%

제시문 (나)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명사'와 '관형사'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범주임	5%
근거	'간이'가 두 품사 범주(명사와 관형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줌 (범주 경계의 불분명성)	10%
	'간이'가 명사의 범주에서는 '사람', 관형사의 범주에서는 '헌'과 비교하여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됨 (전형적 범주 구성원의 존재)	10%

4. 제시문 (다)에서는 미혼모 자녀들의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기인하는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즉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 가족'의 표본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을 자질로, '정상 가족'을 범주로 본다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이라는 특정한 자질을 보유하는 조건에서만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즉 '결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과 더불어, 이 '결혼'이라는 자질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히 정해지기에 범주 경계가 분명하다고 보는 고전적 관점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0%

그런데 (가)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에 따라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혼모 가족의 차

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제시문의 '정상 가족' 개념이 범주의 고전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의 파악 여부와 함께, 그 근거가 되는 속성으로서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의 존재' 및 '범주 경계의 분명함'에 대한 지적 여부, 그리고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의 제시가 채점 기준이 된다. 관련 관점 포착에는 5%, 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논점(본질적 자질의 존재, 범주 경계의 분명함)에 각기 10%씩,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5%를 배점한다.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정상 가족'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보여줌	5%
근거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로 '결혼'이 설정됨 (본질적 자질의 존재)	10%
	'결혼'이라는 자질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의 범주에 소속되거나 제외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하게 나뉨 (범주 경계의 분명함)	10%
비판적 접근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	5%

5. 제시문 (라)에는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나타나 있다. 우선 미디어에서 선정적인 뉴스를 통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자'라고 할 때 범죄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디어 뉴스를 접하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라는 범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범죄자를 연상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정신질환자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이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이는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에 대한 분석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했는지의 여부가 채점 기준이 된다. 이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짓는 것에 5%,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에 10%를 배점한다. 35%

뒷부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었는지의 여부에 5%, 그 근거로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포착했는지의 여부에 10%를 배점한다.

아울러 이것이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경험으로 전체를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미디어

	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판했는지의 여부에 5%를 배점한다. **제시문 (라)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 **각 항목별 배점** 현상 1 – 관련 관점: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 5% 현상 1 – 근거: 한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10% 현상 2 – 관련 관점: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 5% 현상 2 – 근거: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 10% 비판적 접근 –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해야 함.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함. – 5%	
	6.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 외적인 부분 전반에 대하여 10%를 배점한다.	10%

○ [문제2] 채점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통합사회> 과목에서 나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립**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는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에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성이 제고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정을 부여하되 결론의 도출에 도움이 안되는 일반론만 제시하거나 일반론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곧바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정을 부여하지 말 것
- ***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나오는 **'의무론적 접근', '공리주의적 접근'과 '덕윤리적 관점'의 대립**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는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에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성이 제고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정을 부여하되 결론의 도출에 도움이 안되는 일반론만 제시하거나 일반론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곧바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정을 부여하지 말 것

구분	평가 기준		배점	
결론의 선택	입장의 선택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함	5%	10%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의적으로 허용하는 결론이 바람직함	5%	
논거의 제시	자연과 사회의 구분	과학기술이 인과적 자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사회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되어야 함	10%	50%
	인과적 자연의 측면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됨**(항목당 5점, 3개 이상 15점)**	15%	
	윤리적 사회의 측면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됨**(항목당 5점, 3개 이상 15점)**	15%	
	자연과 사회의 종합적 판단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구됨	10%	
국가의 역할	경제적 효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10%	30%
	안전에 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할 것인지	10%	

		의무			
		존엄에 관한 의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할 것인지	10%	
	전체적 판단	논리적 완성도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평가	10%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나)는 '간이'와 같은 단어가 명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두 품사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과 '헌'처럼 명사와 관형사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인 단어가 있는가 하면 '간이'처럼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다. 이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잘 설명된다.

제시문 (다)는 '결혼' 자질을 갖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그 외는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현상을 언급하는데,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정 자질을 갖춘 조건에서만 범주에 속한다는 생각, 곧 범주의 자질이 고정적이고 경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나타난 예인 것이다. 이는 미혼모 가정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결혼' 자질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 범주에 포함하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제시문 (라)는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뉴스 보도가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험에 따라 범주의 전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설명과 관련된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이미지를 정신질환자 범주 전체에 일반화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고정관념을 갖기도 한다. 이런 사고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전제되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인식과 관련된다. 이는 정신질환자 전체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858자)

[문제 2] (1) 찬성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제한적 사용에 대하여 찬성한다. 아직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의 질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유전자 가위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난치병이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잘 통제하면 유전자 가위로만 가능한 각종 치료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분명 사회적 질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적 질서 및 사회적 질서에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적절한 경제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기술혁신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현재에는 난치병 치료나 장기이식과 같은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훗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구분을 바탕으로, 국가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859자)

[문제 2] (2) 반대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하여 반대한다. 우선, 유전자 가위가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장기 부족 및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기술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 자연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가위가 기존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와 같이 원하는 유전 형질을 기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제공하는 혜택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이용에 있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기업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규제나 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기술의 제한적 사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희귀성 난치병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유전자 조작이 치료받은 인간의 또 다른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치료된 난치병의 유전 여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아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되는 유전 형질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지, 미래 세대의 유전 형질을 과연 현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830자)

○ 선생님 예시답안 (대학 답안 수정)

[문제 1]

(가)는 인간이 세계를 범주화하는 방식을 절대적이고 엄격한 고전적인 관점과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적인 관점으로 설명한다.

(나)의 품사의 분류체계는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간이'와 같은 단어가 명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두 품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한편 '사람'과 '헌'처럼 명사와 관형사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인 단어가 있는가 하면 '간이'처럼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다. 이는 품사를 범주화할 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다)는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결혼'이라는 자질을 갖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그 외는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현상은 범주의 자질이 고정적이고 경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나타난 예이다. 이는 미혼모 가정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결혼' 자질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 범주에 포함하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라)는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대안적 관점이 고전적 관점으로 변질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 짓는 보도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는 사회적 경험에 따라 범주의 전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대안적 관점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이미지를 범주 전체에 일반화해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이런 사고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전제되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인식과 관련된다. 이는 정신질환자 전체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편견을 깨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언론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897자)

[문제 2] (1) 찬성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제한적 사용에 대하여 찬성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질서에 종속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연을 이용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편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전자 가위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난치병이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물론 아직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의 질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를 잘 통제하면 유전자 가위로만 가능한 각종 치료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분명 사회적 질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적 질서 및 사회적 질서에 부정적인 효과

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적절한 경제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기술혁신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구분을 바탕으로, 국가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888자)

[문제 2] (2) 반대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하여 반대한다. 인간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질서에 종속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에 도전하는 이 기술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자연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윤리적 질서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물론, 유전자 가위가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인간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와 같이 원하는 유전 형질을 기획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제공하는 혜택이 크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예상치 못한 수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 기술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이 주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업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규제나 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기술의 제한적 사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아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세대의 유전 형질을 과연 현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882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2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라)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100자)

(가)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인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해서 변화한다. 한 사회의 문화가 새로운 요소의 등장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 한다.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사회 내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이 대표적이다. 발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며, 발견은 이미 존재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회 외적 요인으로는 다른 사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화 전파가 있다.

발명, 발견 또는 전파를 통해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선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등장했을 때 이를 받아들여 기존 문화를 대체하려는 집단과 기존 문화를 유지하려는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외래문화가 문화 변동을 주도하는 경우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되어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전통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졌으나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가 혼란을 겪는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개 의식주, 기술 같은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하지만 제도, 규범, 가치관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다. 그래서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문화 지체라 한다.

문화 변동으로 생겨나는 문제에 대처하려면, 다양한 문화 요소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요소 간 조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 변동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문화 변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오늘날 파란색은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채이다.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색임에도 파란색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사회·정치·문화 예술 영역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색이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에게 파란색은 무지개에 없는 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경우 켈트족이나 게르만족 같은 미개인과 야만인의 색 또는 경계해야 할 색이었다. 붉은색, 흰색, 검은색의 3색 체계를 색의 근본으로 이해한 그리스 로마인들은 장례식 외에는 파란색 옷을 입지 않았다. 파란색은 상(喪)을 당한 암시이자 죽음을 연상시켰다.

파란색이 유럽에서 선호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경부터이다. 부정적 의미를 지녔던 고대의 파란색은 이제 귀족의 색,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했는데. 여기엔, 중세 기독교 성화(聖畫)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10세기부터 성화 속 파란색은 '신의 현현[1]인 빛'으로 부각되었으며,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성당 스테인드글라스의 파란색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성스러운 빛이 발하는 색유리의 파란색은 하늘과 빛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했다. 동시에 색유리의 파란색은 쉽게 변질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색 또는 경험한 적 없는 아름답게 빛나는 신성한 색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화 속의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의복이 어두운 톤의 파란색에서 밝은 톤의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또한 당시 지배적이던 마리아에 대한 열렬한 숭배까지 더해져 파란색은 가장 아름다운 색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쳐 '모든 색 중 최고의 색'으로서 왕과 귀족들의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나아가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파란색의 미적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다. 13세기에는 염색업자들이 아름다운 청색 염료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되면서 파란색의 인기 상승에 공헌했다. 이러한 일련의 파란색의 가치 상승은 색의 서열을 완전히 새롭게 편성했다.

1) 현현 (顯現) 하다 :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내는 것.

(다) 1066년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침략하여 정복한 사건을 노르만 정복이라 한다. 노르만 정복 직후 영국의 지배층은 노르망디 출신 귀족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영국에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프랑스어는 영국 상류층의 주류언어가 되었다. 반면 영국인이 쓰던 영어는 그 보편적 지위를 잃고 하류층 서민들의 비주류 일상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상류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는 영국인들은 프랑스어를 배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도 프랑스어로 쓰이게 되었다.

노르만 정복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프랑스어 어휘가 영어에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가축의 명칭은 고대 영어에서부터 내려온 토착어(예: cow. pig. sheep)로 계속 쓴 반면, 요리용 고기(예: beef, pork, mutton)와 그 조리법(에: fry, roast, stew)은 프랑스어 차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토착 영국인은 가축을 기르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르만 귀족들은 그 고기를 요리로 즐겼던 생활 문화적인 계층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당시 영국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기능이 위계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양층어 사회[1]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10,000개의 영어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프랑스어 차용어(45%)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노르만 정복 이후 약 400년에 걸쳐 들어왔다. 현대 영어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언어보다 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시기에 일어난 급격한 어휘 증가가 이러한 풍부함의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1) 양층어(兩居語) 사회: 한 사회가 두 개 언어를 쓰되 그 두 언어가 사회적 기능에서 차별적인 경우.

(라) 아동이 유연한 사회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폭넓은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제공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은 현실 세계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과연 온라인 게임이 친구들과 직접 어울려 노는 것만큼 사회성 발달에 좋을까?

1970년대 아케이드 비디오게임이 등장한 이후, 1990 년대에는 인터넷과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저렴해지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인터넷에 연결된 게임 콘솔은 청소년이 방안에 홀로 틀어박혀 전 세계 각지의 낯선 사람들과 조합을 바꿔가며 장시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디오게임을 하던 시절에는 게임 상대가 친구나 형제였고, 바로 옆에 앉아 흥분과 농담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게임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연결된 게임 콘솔을 갖게 되자, 제한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아동과 청소년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안정적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잘 성장한다. 특히 친구들과 모험을 동반하는 신체 놀이를 함께 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연습을 한다. 반면 현실 세계 경험을 디지털 세계 경험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연결은 넓어지지만 사회적 경험은 얕아질 수 있다.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아)에 나타난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을 비교·분석하시오.

(800±100자)

(마) 각 국가는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차이가 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1]하여 상호교환하는 것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익이다.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시장이 확대되어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의 상품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 간 교역품은 재화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교역의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무역의 비중이 높은 상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아가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위협받고 심지어 실직에 이를 수도 있다. 확대된 국제무역은 경제 부문 외에도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 및 민간의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영향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1) 특화 : 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기에 유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

(바) A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국제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 현재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산업은 연간 원화 약 26조 원 규모로 A국에서 광업, 관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A국을 찾은 해외 유학생들은 연간 70만 명에 육박했다.

유학생의 대다수는 중국, 인도, 한국, 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이다. 졸업 후 이들은 A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팬데믹 이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해지며, 유학생을 노린 집단 폭행 사건도 현저히 증가했다. 이에 중국과 인도 정부는 자국민에게 해외로 유학 갈 경우 A국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국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는 유학생들로 인한 높은 수요로 2023년 한 해에만 임대료가 15% 이상 폭등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A국 정부는 2025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에 32만 3천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27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자 수수료를 약 63만 원에서 약 152만 원으로 인상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A국 대학교들은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면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유학생 제한조치로 인해 2025년 A국 경제 규모는 약 3.1조 원이 감소할 것이며, 고등교육 기관에서 종사하는 2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 1970년대부터 B국 정부는 자국민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약 230만 명의 B국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 218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년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B국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주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 매년 17만 2천 명의 B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홀로 해외로 이주한다. B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나 의사로 일하던 전문직 여성들도 북미, 서유럽, 중동 등의 국가에서 가사도우미나 보모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B국 여성의 취업 기회나 보수 등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능력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사도우미와 같은 직업의 특성은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가정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노동 착취나 피고용자를 상대로 한 학대가 발생하기 쉽고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 가사도우미가

외국인이며, 비자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가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B국 이주노동자익 상당수가 고용주로부터 학대, 감금, 임금체불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었다고 증언한다. B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유엔 인권 기구와 세계 노동 기구(ILO)에 보고하며 언론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주노동자들을 '현대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B국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비판과 인권 개선 활동을 반기지 않는다고 보도한다.

(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과 함께 2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이다. 2차전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0.8%에서 2023년 1.6%로 증가하면서 해당 산업은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입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차전지의 원료는 흑연, 니켈, 코발트 등 천연광물이 대부분인데,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자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차전지 핵심 광물 중 하나인 흑연의 전 세계 채굴량 중 약 70%(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입하고 있다.

구분	천연흑연 수입 동향			인조흑연 수입 동향		
연도	대중국수입	중국외수입	전체	대중국수입	중국외수입	전체
2020	78,584	8,022	86,606	83,080	15,702	98,782
2021	84,454	9,187	93,641	98,218	14,273	112,491
2022	105,114	6,270	111,384	120,376	9,003	129,379
2023(9월)	65,326	1,527	66,853	74,613	4,474	79,087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2차전지 시장의 확대로, 국내 기업은 상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터리의 용량, 충전속도,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제품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전기차, 전력망 등 다른 분야로의 파급력이 큰 2차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수입 광물의 자립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특화단지에 도로, 전력, 용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OO배터리(주) 전략팀에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된 김부장은 얼마 전 중국에서 흑연 채굴량 과다로 지하수 오염 등 채굴지의 자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뉴스와 함께,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환경 및 청단산업 보호를 위해 흑연의 채굴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통제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에 김부장은 국내 공장의 흑연 재고 추가비축을 요청하고, 구매팀을 통해서는 아프리카 국가 등 흑연 수입 대체국가를 물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부장은 정부가 중국과 핵심 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 2 강 2025학년도 기출2 대학발표 해설

○ [문제1] 채점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 (제시문 (나)-(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20%),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토대로 (라)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3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2.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① 제시문 (나)의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견'(파란색의 상징과 가치의 재발견)이다. 이에 더해 파란색의 가치 상승이 종교의 영역에서 사회·정치 영역으로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산, 전이 된 것에 대해 '전파'로 해석하는 것, 13세기 청색 염료의 생산을 '발명'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발견'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전파'나 '발명'을 추가로 언급한 경우 설명이 타당하다면 감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감점한다. ② 제시문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파란색의 재인식을 통해 파란색의 다채롭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전파'(노르만 정복-전쟁을 통한 직접 전파)이다. 참고로, 『통합사회』 교과서에 전파의 한 유형으로 '직접 전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생들 중에는 이 개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는 '직접 전파'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직접 전파'를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파'와 '직접 전파' 모두 답으로 인정한다. ④ 제시문 (다)에서는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전파가 일어난 직후에 '집단 간 갈등'과 '점	60%

체성 혼란'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점과 그 이후 영어 어휘가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을 모두 찾아서 서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어의 지위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영어가 프랑스어에 동화되지 않고 프랑스어를 영어화하여 영어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참고로,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이러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문화 병존'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 중에서는 '문화 병존'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제시문에는 '문화 병존'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⑤ 제시문 (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명'(디지털 기기, 온라인 게임 등의 기술 발명)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 인터넷, 3D 그래픽, 게임 콘솔 등의 기술이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발명'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전파'를 추가로 언급한 경우 설명이 타당하다면 감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감점한다.

⑥ 제시문 (라)에서 문화 변동의 결과로,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기술 발전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는 과정에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노미 현상'이나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⑦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60점)

채점 요소의 예		
제시문	문화 변동의 원인	문화 변동의 양상
제시문 (나)	'발견' ('전파'와 '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파란색의 가치 상승이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전이·확장되어 인간이 삶이 미적으로 풍요로워짐.
제시문 (다)	'전파' ('직접 전파'로 설명할 수도 있음)	노르만 정복 직후 한동안 영어와 프랑스어가 주류어와 비주류어로 나뉘게 됨으로써 '집단 간 갈등',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영어가 프랑스어에 동화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어의 어휘가 풍부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 ('문화 병존' 개념을 언급하여 설명할 수 있음.)
제시문 (라)	'발명' ('전파'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기술 발전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규범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 '아노미 현상',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남.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30%

① 제시문 (라)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이 늘어나고 '현실 세계의 경험'이 줄어들어서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은 '친구들과 직접 어울려 노는 것'이 아닌 '방 안에서 홀로' 노는 것이며, 안정적인 집단에 속하는 경험이 아닌 낯선 사람들과 얕게 연결되는 경험이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 문제는 서로 특성이 다른 '현실 세계 경험'을 '디지털 세계 경험'으로 완전히 '대체'했을 때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②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제시문 (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과 대처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한 편으로 글로서 일관성을 지니는지 확인한다. 앞서 기술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논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시문 (가)의 마지막 단락에서, 문화 변동으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 간의 조화와 공존', '문화 변동에 대한 성찰'을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라기보다는,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처 방안은 제시문 (라)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문 (가)에서 얻은 지식, 제시문 (나), (다)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30점)

채점 요소의 예	
대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초점	참고 사항
제시문 (가), (다)의 내용 : '조화와 공존', '풍요로운 삶'	'디지털 세계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 중 둘 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배척되거나, 둘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상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제시문 (가)의 내용 : '문화 변동에 대한 성찰'	'현실 세계 경험'과 비교하여 '디지털 세계 경험'의 강점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세계 경험'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성 있는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내용 : '아노미 현상',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한 대처	『사회·문화』 교과서의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문화 변동이나 새로운 물질문화에 적합한 사회 규범, 제도 등을 확립하고, 그것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의식 변화와 규범을 정립하려는 캠페인, 재사회화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 학교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다.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총 배점 10점) 10%

○ [문제2] 채점기준

<table>
<tr><th>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제 2</td><td>※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무역 확대의 영향 개념을 적용하여 (바)~(아)에 나타난 사례를 각각 분석하는 부분에 45%를,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분석에 30%, 대응에 대하여 (바)~(아) 사례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논하는 부분에 15%를,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td><td></td></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평가 기준</th></tr>
<tr><td>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td><td>긍정적 영향</td><td>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 수출산업을 국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무역 확대가 이뤄짐. 긍정적 영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산업 관점: 교육산업의 고용 창출 및 주택 임대차시장의 확대
- 정부 관점: 국내 총생산 증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 유학생의 동반가족에 의한 긍정적 경제적 영향 및 유학생 유치산업의 성장 및 고등교육기관 재정 안정을 서술할 경우 가점 부여

※ 경제주체별 긍정적 영향을 서술하지 않고 국내 총생산 증대 또는 국내 경제 활성화 등 단편적으로만 서술할 경우 일부 감점</td></tr>
<tr><td></td><td>부정적 영향</td><td>- 유학생 숫자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 임대료 폭등
-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A국에 잔류하여 불법체</td></tr>
</table>
</td><td>15%</td></tr>
</table>

		류자로 남아 있는 것 - 급증한 유학생 숫자로 인해 A국 국민과의 사이에 인종적, 문화적 갈등 증폭 ※ 타국 정부(인도 및 중국)와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서술할 경우 가점 부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정부: 유학생 비자발급 축소 및 심사기준 강화와 비자 발급 수수료 대폭 인상 - 타국 정부: 인도 및 중국의 A국 유학 자제 권고 - 민간: A국 대학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10%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긍정적 영향	정부가 자국 인력의 해외파견, 즉 생산 요소(노동) 수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무역의 확대가 이뤄짐. 긍정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가계 관점: 해외 파견 인력 가족의 소득 및 소비 증가, 해외 취업 기회 - 기업 관점: 해외 파견 인력 알선 산업의 일자리 창출 - 정부 관점: 해외 파견 인력의 본국 외화 송금으로 국내 총생산 증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15%
	부정적 영향	- 해외 파견 인력 개인 삶의 황폐화(가족과 공동체와의 연결 차단) - 수입국에서의 해외 파견 인력의 인권 침해 ※ 국가 차원에서 수출국은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및 그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국내 경제의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상실한 것을 서술할 경우 가점 부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민간: 사회단체의 인권 개선 운동, 국제 인권 기구 등에 문제점 보고 등 - 정부: 수출국 정부의 무반응 및 사회단체의 해외 인력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적대적 반응	10%
제시문 (마)로 제시문 (아)를 분석	긍정적 영향	2차전지 산업 확대를 국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무역 확대가 이뤄짐. 긍정적 영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가계 관점: 2차전지 관련 종사자(제시문의 김부장 사례 활용 가능)의 가계 소득 증가 및 관련 소비 증가 - 기업 관점: 경쟁 및 연구개발(기술혁신)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효율성 강화 및 기업투자의 증가 - 산업 관점: 전후방(전기차, 철강산업 등) 연관산업 발달 - 정부 관점: 첨단 국가기술 확보 및 국부 증대,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작성자에 따라서 기업과 산업의 관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음.	15%

		※ 작성자에 따라서 해외(중국)의 흑연 채굴량 증가에 따라 중국의 국부, 관련 산업 및 관련 산업 내 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활성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점 부여 ※ 경제 주체별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2차전지 산업 확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부가 증가하는 등 단편적인 장점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일부 감점	
	부정적 영향	-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확대됨.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심화되고, 국내 경기의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어 환경적 문제가 발생 가능 - 우리나라와 중국간 흑연 수입 문제로 인한 통상마찰의 발생 가능성 ※ 작성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흑연 자원 의존도가 연도별로 점차 심화됨(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연도별로 증가)을 지적하고, 특히 심화도가 더욱 높은 천연흑연을 언급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작성자에 따라서 중국 내 정치 외교적 문제 등의 국내 전파, 보호무역주의 발생 가능성, 흑연 채굴국가 관련 종사자 등의 노동착취 등 사회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함.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가계(기업): 흑연 재고 수급 노력, 원료 수입선 다변화 - 정부: 기업의 자원 수급 자립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중국 정부: 흑연 채굴량의 감소 정책 및 해외 수출 통제 ※ 작성자에 따라서는 가계(기업) 차원의 추가 대응방안으로 원료의 국산화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흑연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제시할 수 있음.	10%
제시문 (바)~(아)의 비교 분석	공통점	- 모두 국제무역 확대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의 특정 산업에 대한 특화 및 정책적인 지원이 존재함. 예를 들어 제시문 (바)는 정부가 자국 내의 발달한 교육 인프라(산업)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시문 (사) 값싸고 질 좋은 자국 내 인력에 특화하여 자국민 인력의 해외 파견 정책을, 제시문 (아)는 2차전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출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 결과, 제시문 (바)~(아)에서 모두 긍정	15%

		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경제적 문제 외에도 다른 사회 제반 분야(사회문화적, 환경적 분야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하여 관련 경제주체 및 민간단체의 대응이 존재하는 점이 주된 공통점임.
	차이점	-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대응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제시문 (바)의 경우 주로 국가적(비자발급 축소 및 인도·중국 등 타국 정부의 대응)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제시문 (사)의 경우 민간 사회단체의 대응이 중점적임. 반면 제시문 (아)의 경우 자원 의존도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관련 경제주체 모두가 대응하는 양상임. - 제시문 (바), (사)의 경우 대응의 대상이 경제 문제 외에도 사회문화적 문제라는 점이 공통점이며, 제시문 (아)의 경우 환경적 문제가 경제 외의 추가적인 대응 대상임. - 국가적 대응의 경우 제시문 (바), (사), (아)의 경우 각각 무역 확대 정책의 부작용 이후 일부 후퇴((바)), 특별한 대응없음((사)), 정책적·외교적 노력 지속((아)) 등 상이하게 나타남. ※ 작성자에 따라서는 제시문 (아)의 경우 정부의 외교적 대응 측면을 강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문화 변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 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 변동에 대해 성찰하고, 조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제시문 (나)는 고대에 미개인의 색, 죽음의 색 또는 중요하지 않은 색으로 여겨졌던 파란색이 12C경부터 신과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 가장 아름다운 색,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새롭게 인식된 변화의 역사를 보여준다. 여기에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견이다. 파란색의 상징과 가치가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청색 염료 개발이 촉진되고 인간의 삶은 미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제시문 (다)는 노르만 정복 이후 영어가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전파가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영국은 양층어 사회가 되었고 이는 집단 간 갈등과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유입으로 현대 영어가 풍부해졌다는 점은 문화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조화와 공존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시문 (라)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게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발명에 따른 문화 변동의 사례이다. 기술의 발명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롭고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경험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문화 변동이 일어났지만 그에 맞는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가 정립되지 않아 아노미 현상 또는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면 디지털 세계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이 균형을 갖추도록,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신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학교나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918자)

[문제 2]

(바)에서 정부의 유학생 유치 노력은 A국 교육 수출 및 유학생 유치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총생산증가, 고용 창출 및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성장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유학생 유입으로 인한 인종적, 문화적 갈등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사)의 경우 B국의 생산 요소인 노동 수출을 통한 무역 확대 추진으로 파견 인력과 가족의 소득 및 국내총생산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고급인력의 비효율적 활용과 파견 인력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에서 정부의 2차전지 산업 지원정책은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 산업 및 첨단기술 발전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었다.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자원 의존으로 국내 경제가 타국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다.

(바)~(아)를 비교하면, 모두 국제무역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관련 산업을 특화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 및 사회 제반 분야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바)와 (아)에서 각각 임대료 폭등 및 자원 의존도 심화가, 사회문화적으로는 (바)의 인종차별과 (사)의 인권침해가, 환경적으로는 (아)의 수질오염 발생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한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주체가 (바)는 국가(A국 및 타국 정부) 위주이며, (사)는 민간 사회단체라는 점이 주요 차이점이다. 반면 (아)는 자원 의존도 심화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계, 기업, 정부 등 관련 경제주체 모두가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각 제시문에서 무역 확대의 부작용 이후 국가적 대응이 (바), (사), (아) 순서로 일부 후퇴. 특별한 대응 없음, 정책적·외교적 노력 지속 등으로 각각 상이하다. (862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문화 변동은 발명과 발견의 내적 요인과, 문화전파의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 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나)에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주된 요인은 '발견'이다. 고대에 미개인의 색, 죽음의 색, 중요하지 않은 색으로 여겨졌던 파란색이 12C경부터 신성한 색, 가장 아름다운 색,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또한 파란색의 사회적 의미가 종교와 예술의 영역까지 확산된 것에서 문화의 '전파' 양상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파란색의 상징과 가치가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인간의 삶은 미적, 사회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다)는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를 보여준다.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프랑스어는 영어의 위상을 변화시켰다. 영국은 양층어 사회가 되었고 이는 집단 간 갈등과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유입으로 현대 영어가 풍부해졌다는 점은 문화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조화와 공존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는 '발명'에 따른 문화 변동의 사례이다.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게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발명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롭고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경험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그에 맞는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가 정립되지 않아 문화 지체 현상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규범과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적 신체 놀이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디지털 세계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이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895자)

[문제 2]

각국은 자국의 생산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국제무역에 참여한다. 특화를 통한 국가 간 교역은 경제 부문을 넘어 사회의 여러 분야에까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바)의 A국은 교육 수출 및 유학생 유치산업을 특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대상 사업의 증가, 고용 창출 및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성장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학생 유입으로 인해 임대료가 폭등하는 경제적 부작용과 불법체류 문제나 문화적 갈등, 외교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였다.

(사)의 B국은 생산 요소인 노동 수출을 통한 무역 확대를 추진하였다. 자국 인력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늘고 국내총생산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고급인력의 유출로 국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파견 인력의 인권침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에서 정부는 2차전지 산업을 특화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 산업 및 첨단기술 발전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자원 의존으로 국내 경제가 타국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와 통상 마찰의 위험성이 발생했다.

(바)~(아)는 각각 국제무역 확대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주체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바)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유학생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특화 산업 축소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는 특화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작용을 외면하고 무대응을 하고 있기에, 사회단체가 인권 개선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관련 경제주체 모두가 대응하여, 특화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898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3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이때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800±100자)

(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이라는 저 작은 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은 역사가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일이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이와 더불어 굴절 또한 경험한다. 역사가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이므로 개인적인 기호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역사가의 눈, 곧 현재의 관점에 의한 해석을 통해 굴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그 당시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생긴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의 비천한 노예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며 둘 중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 준 잠정적인 해석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과 사실의 선택 및 정돈 이 두 가지는 미묘하고도 얼마간 무의식적일 수 있는 변화들을 겪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와 과거의 상호 관계이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하면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며,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떠받치는 철학은 유물론이고, 인식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유물론은 물질세계가 인간의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이다.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먼저고 인간 정신과 의식은 나중이다. 유물사관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의 의미는 다른 개념들이 흔히 그렇듯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졌다. 변증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이는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었다. 헤겔은 사물을 대립하는 것의 통일로 간주했다. 세계가 내부의 대립과 모순을 동력으로 삼아 변화한다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인식의 방법론을 변증법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헤겔의 관념론 철학에서 떼어 내 유물론 철학과 결합함으로써 유물사관의 뼈대를 세웠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미래를 바꾸는 데만 관심을 쏟았고 과거를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작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그의 철학을 따르는 역사가들이 떠맡아야 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역사 서술의 법칙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실을 수집해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면 충분했다. 그들은 지역, 민족, 사회 또는 국가의 과거 상태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 언어, 풍속, 문헌 등 모든 종류의 사료에서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찾아내 역사의 과정을 원시공산제[1]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에 이르는 것으로 재구성했다.

1) 원시공산제 : 고대 노예제 성립 이전의 원시 사회의 사회 조직,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를 평등하게 배분하며 계급 지배가 존재하지 않고 주로 혈연적인 결합으로 형성된 인류 최초의 사회 제도.

(다) "상감마마, 마음을 든든히 하시오."

알천[1]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아뢰었다.

"아니, 이 몸의 갈 날이 이르렀소. 이 몸이 철없는 어린 여자의 몸으로 임금이 된 지 팔 년 동안 큰 허물이 없이 지낸 것은 다 알천 상대등의 충의의 힘이오. 이 몸이 죽은 뒤의 일은 다 알아서 하시오."

왕[2]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천은 무어라고 아뢸 바를 몰라서 다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왕은 다시 말을 이으시며,

"고구려와 백제가 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소. 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려 하나 이것은 외인[3]을 불러서 형제를 치려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몸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차라리 백제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서로 화친할 것을 말하고 세 나라가 한곳에 모여 서로 맹약함이 좋을까 하오. 행여 당병[4]을 이 땅에 끌어들이지는 마오." 하시는 유칙[5]이 계시었다.

- 이광수, 『원효대사』, 1942

1) 알천(閼川, ?~?):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을 역임한 신라의 장수・귀족.
2) 왕: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眞德女王: ?~654, 재위 647~654)을 지칭함.
3) 외인(外人): 다른 나라 사람 4) 당병(唐兵): 당나라 병사
5) 유칙(遺勅): 임금이 생전에 남긴 명령

(라) 삼국 말기에는 상호 교류와 영역 변동 등을 통해 삼국의 주민 간에 풍습・제도・의복 등 생활 양태에서의 동질화도 진전되어 갔다. 그래서 이 시기 제3국 사람들이 삼국의 주민을 같은 족속으로 분류하여, 이를 삼한(三韓)이라 하는 '이름 붙이기'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 당과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신라 조정의 주도하에 전면에 내세워졌다. 삼국인이 같은 한(韓)에 속한 세 집단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이 그것이다. 삼한이란 새로운 '이름 붙이기'와 '이름 부르기'가 합치하는 양상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이어 통일신라기 2백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상당한 공통성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영역 내의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문화적 융합도 진행되었는데, 서민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간 불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족 의식 또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소외되었던 백제・고구려 유민들에게는 그것은 피동적인 귀속 의식 이상은 아니었고, 내면의 한편에는 삼국 유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면이 신라 말 농민 봉기의 파장에 편승하여 후삼국의 정립으로 나타났다.

**※ [문제 2]는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1.5배를 배점하고,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 (사), (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마) 사람은 항상 다른 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단지 그들이 선심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의 자애심[1]이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구받은 그 일을 해 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타인과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피차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대부분을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분명하고도 단순한 자유의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있다. 모든 개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독립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면직[2]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사법 행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이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데 국가의 권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간 번성할 수는 없다. 요컨대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1) 자애심: 자기사랑(self-love). 자애주의는 이기주의(egoism)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기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태도를 말함.
2) 면직: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시장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공급자가 하나 또는 소수인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독과점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누려야 할 잉여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당하게 된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분할 지배하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담합 기업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차별성이 없는 비슷한 상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득을 빼앗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사) 오늘날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상호주의, 책임감과 같이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비공식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국부의 창출에 천연자원의 비중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천연자원이나 인적 자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에밀리아 로마냐와 투스카니와 같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많은 활동적인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시민들은 후원이나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평등의 구현에 노력해 왔다. 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시민 공동체는 연대, 사회적 참여, 통합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반대로 칼라브리아와 시실리와 같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시민적 문화가 아니다. 이곳에서 시민의식의 개념은 방해받는다. 사회적·문화적 단체에의 참가는 미미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과 같은 남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법이 붕괴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 두려워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한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부도덕한 관행에 사로잡혀 거의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고, 착취당하며, 불행하다고 여긴다.

(아) 경기가 과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근로 의욕이 저하되며, 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이 성행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도하게 나빠지는 불황이 계속되면 실업이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는 "경기 불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저축은 늘어나는데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아 수요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소득이 줄면서 소비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과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에 샤워 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바보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샤워 꼭지를 얼른 더 돌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러한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 효과의 지연을 일으켜 오히려 경기 불안이 가중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제 3 강 2024학년도 기출1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관계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를 읽고 이로부터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 및 실제 역사를 기술한 두 가지 형태의 텍스트를 읽고, 각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내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에 기술된 역사와 역사가와의 관계로부터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현재의 입장에 따른 '해석' 및 '굴절'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와 더불어,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상호작용 및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는 문구로부터 '균형'이라는 개념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현재 입장에 따른 해석에서 기인하는 굴절이 지나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명제를 이후에 제시되는 예문들에 도입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위배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보조 예시문의 도움을 통해 문학작품의 대화 속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상기 명제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일부를 발췌·편집하고, 거기에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나)는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중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특히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역사 서술에서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역사가의 해석에 따른 굴절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문제점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는 이광수가 1942년에 집필한 역사소설 『원효대사』중에서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이 임종 직전에 상대등 알천에게 유언을 남기는 부분이며, 어휘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주석을 부기하였다. 해당 부분에는 삼국 통일 전쟁과 관련하여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는 형제로 보고 당나라를 외국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한국 민족의 형성 시기가 삼국 통일 이후라는 견해가 담겨 있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현재의 인식에 따라 과거를 해석한 결과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한국 민족의 형성 시기를 다룬 노태돈의 논문「한국민족형성시기론」에서 발췌한 것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잡지인『한국사시민강좌』에 수록된 것으로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역사와 역사가의 관계에서 취사선택이나 해석, 굴절 등과 같은 핵심적 개념을 유추해낸 뒤, 이를 뒤에 나오는 제시문들에 대입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를 읽고 과거 사실에 대한 취사선택과 현재 관점에서의 과거에 대한 해석 및 그로부터 기인하는 굴절 등의 키워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 및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취사선택과 해석·굴절 등의 '균형' 또한 주요 명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후 제시문들에 대입하여 상기 키워드 개념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먼저 제시문 (가)는 주로 E. H. 카의『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거기에 고등학교『세계사』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 역사가와 관련된 일부 기술을 발췌하여 추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역사와 역사가 그리고 이와 결부된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가 역사가의 취사선택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됨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취사선택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문단에서는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가 현재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굴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과거 당시의 맥락과는 거리가 생김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부터 두 번째 키워드인 현재의 입장에 따른 '굴절'이 도출되며, 동시에 과거 사실의 맥락에 변형이 생긴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역사가와 사실의 '상호작용' 및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로부터 상기 제시된 키워드들, 곧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현재 입장에서의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굴절 등이 지나쳐서는 안 되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유시민의『역사의 역사』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상기 제시된 명제 중에서 주로 취사선택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본문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유물사관에 맞는 사실을 수집하여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부터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이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내용에서 단순히 취사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 과거 사실의 현재적 입장에 따른 평가・굴절의 부분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시문 (다)는 이광수의 역사소설『원효대사』중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이 임종 직전에 상대등 알천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것을 한국 민족의 형성 시기를 다룬 노태돈의 논문「한국민족형성시기론」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시문 (라)에는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이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 당과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견해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제시문 (라)의 요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분석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시문 (다)의 내용 중 진덕여왕이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의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시문 (가)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현재적 입장의 해석 및 굴절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읽어내어야 한다. 삼국이 통일된 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오랜 통합의 역사를 알고 있는 후대의 관점에서 삼국을 보는 입장이 과거에 투영된 것일 뿐, 제시문 (라)에 입각하면 당대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가 현재적 입장에 따라 과거 사실의 해석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 과거 사실의 굴절이 일어난 경우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앞서 제시문 (가)에서 과거 사실의 맥락이 변형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므로, 과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 즉 역사가에 의해 서술 대상이 취사선택된다는 속성, 그렇게 해서 선택된 서술 대상이 역사가의 현재 관점의 영향을 받아 해석됨으로써 굴절된다는 속성, 하지만 이처럼 편향될 수 있는 선택과 해석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실, 과거 사실이 놓인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유의점을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의 요지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 나타난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을 이해하는 것에 30%,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20%,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40%,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가)에 제시된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진술해야 한다. (30%)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	각 항목의 배점
① 역사 서술의 속성	'취사선택'의 속성.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기술됨.	10%
	'굴절'의 속성.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됨.	10%
② 역사 서술의 유의점	편향될 수 있는 선택과 해석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실, 과거 사실이 놓인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함.	10%

3. 제시문 (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0%)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각 항목의 배점
① 제시문 (나) 분석	이미 정해진 철학과 인식 방법론을 바탕으로 역사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취사선택함.	5%
	아울러,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실을 미리 정해진 관점에 따라 해석함.	5%
② 제시문 (나) 평가	취사선택에서 과거의 사실과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음. 역사가의 관점에 반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시될 위험이 있음.	5%
	해석에서도 과거의 사실과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음. 각 사실과 결부된 과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큼.	5%

4.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를 분석하도록 했으므로, 제시문 (라)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점한다. (40%)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각 항목의 배점
① 제시문(라)의 요지 파악	제시문 (라)에 따르면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함.	10%
② 제시문 (다) 분석	제시문 (다)에서 작가는 진덕여왕의 발언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형제이고 당나라는 외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보여 줌.	10%
③ 제시문 (다) 평가	삼국 통일 이전인 제시문 (다)의 시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는 형	10%

	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따라서 이는 작가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임.	
	현재 입장에 따른 과거 사실의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경우로, 과거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

5.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문제 2]

1. 출제 의도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대중은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환경파괴, 빈부격차, 도시집중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죄악시하고 기업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인간 본성의 발현이자 사회의 필수적 기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 나아가 그 조건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점에 대한 이해를 묻고자 하는 것에 출제의 의도가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서술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마찬가지로 제시문 (마)에서 제시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조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 그 방향성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고전의 내용으로서 제시문 (마)를 사용한다.

이러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바탕지문]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찾았다. 이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상대방의 자비심이 아닌 자애심에 기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시장경제(설문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하 동일)는 규칙의 준수에 바탕을 두는 상호 간 신뢰를 논리적인 전제로 하는바, 이러한 신뢰의 체계를 권력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한 재판을 또한 강조하였다. 이로써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함께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제시된다. 수험생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분석지문]을 분석해야 한다. 그중 첫째의 [분석지문]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서 찾고 있고, 둘째의 [분석지문]은 시장경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의 [분석지문]은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종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3개의 [분석지문]은 모두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3개의 [분석지문]은 모두 고등학교『경제』교과서를 토대로 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높고,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게끔 구성하였다. 아울러 [바탕지문] 역시 국부론을 중심 내용으로 하되, 고등학교『고전』교과서를 토대로 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바탕지문]과 [분석지문]을 통해 수험생은 경제활동이 때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나 경제활동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조건을 찾아내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선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논리적인 정확성, 체계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답안 평가의 핵심이 된다.

2. 문항 해설

❶ 설문에 대한 해설

설문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표현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바탕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마)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핵심적인 명제로 정리하고, 이에 준거하여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바), (사), (아)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라는 것이 설문의 취지이다

❷ 제시문 (마)에 대한 해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발췌한 내용을 종합하여 [바탕지문]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어 해당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고등학교『고전』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이후 내용이 이어진다. 첫째 단락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한다. 상대방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애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바, 이는 상호 간 신뢰를 논리적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신뢰에 관한 설명은 둘째 단락에서 강조된다.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신뢰의 체계는 다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설명이 셋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게 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재판이 그 핵심이다. 이상으로부터 추론되는 바는 시장경제는 자애심에 기초하여 작동하고, 이러한 자애심은 규칙의 준수에 대한 상호 간 신뢰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다.

❸ 제시문 (바)에 대한 해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서술된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 주제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첫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바)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원인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설명한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을 빼앗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라는 표현에 그 취지가 잘 드러난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하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지만,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수험생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경우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그 작동을 위해서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국가의 규제는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야 한다.

❹ 제시문 (사)에 대한 해설

둘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상호 간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에서 말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데 반하여, 제시문 (사)에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가 애당초 미성숙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상호 간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수험생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위해 국가가 경제적 역할 외에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비경제적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직한 지도자, 평등의 실현, 시민 자치의 활성화, 수평적인 네트워크 등이 제시문 (사)에 제시되어 있다.

❺ 제시문 (아)에 대한 해설

셋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정부 정책의 역할로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 그 방향성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은 시장경제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위해서 국가가 모종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 구체적 방안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단서는 제시문 (마)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수험생은 그중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규칙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국가의 공권력과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한편, 제시문 (마)의 설명을 자유방임주의 또는 정부개입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제시문 (아)에서 제시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답안은 논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3. 채점 기준

※ [문제 2]는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1.5배를 배점하고,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제시문 (마)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30%, 제시문 (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20%, 제시문 (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20%, 제시문 (아)를 분석하는 부분에 2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구체적으로 아래 채점기준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	이해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자애심에 대한 호소(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으로서 상호 간 신뢰(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익의 추구)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국가에 의한 독립적인 재판)	15%
	분석	* 시장경제는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작동하며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	15%
제시문 (바)	이해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 실패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측면	10%
	분석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시장이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함 * 국가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10%
제시문 (사)	이해	* 사회적 자본과 시장경제의 관계 *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방안	10%
	분석	* 시장경제의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비경제적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국가의 비경제적 개입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10%
제시문 (아)	이해	*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견해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됨 * 시장경제의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내포함	10%
	분석	*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의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답안은 논점의 일탈임	10%
기타		* 글 전체의 논리적인 정확성, 체계성, 타당성 등을 종합함 * 설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적절하게 감점함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되며,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되기도 한다. 현재를 사는 역사가의 가치관, 편견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편향될 수 있는 역사가의 잠정적인 선택과 해석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과거를 향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의 노력, 즉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나)에서 역사가들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토대로 역사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취사선택하여 관점에 맞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경우 역사가의 관점에 반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시될 위험이 있으며, 선택된 사실의 해석에서도 각 사실과 결부된 과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작가는 진덕여왕의 발언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형제이고 당나라는 외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시문 (라)에 따르면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그 이전인 (다)의 시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삼국이 하나로 통일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작가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반영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즉 현재 입장에 따른 과거 사실의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당시의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853자)

[문제 2]

제시문 (마)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자비심이 아닌 자애심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신뢰, 법과 제도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논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함으로써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신뢰의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특히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게 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공정한 재판은 신뢰의 체계에 필수적이다.

제시문 (바)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특히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광고는 모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제시문 (사)는 국가가 시장경제를 위해 무형의 자산인 신뢰, 책임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자본을 갖춘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과 신뢰의 체계가 무너진 남부 지역의 비교를 통해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점에서, 국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무관한 비경제적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아)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특히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조건을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복수의 방법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할 수도 있다. (961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4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시오. (800±100자)

(가)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관이다. 의무론의 대표 학자인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욕구를 극복하고 스스로 정립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인간 의지는 고귀하며, 이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행위를 인간다움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 하였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윤리관이다. 결과론은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한다. 밴덤과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무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 중심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대 윤리학에서는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담론 윤리적 접근과 책임 윤리적 접근이다. 담론 윤리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은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규범 체계이며,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책임 윤리적 접근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역할에 따른 책임과 보편적 책임 그리고 하지 않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책임의 범위와 대상도 개인을 넘어 집단, 미래 세대, 동물, 생태계 등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이 접근은 당면한 윤리 문제를 책임의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나)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가 발명되어 직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자 직조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숙련 노동자였던 직조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단순 생산직으로 내려앉아 비숙련 노동자의 대접을 받았다. 때마침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내몰린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처우 역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노팅엄셔, 더비셔 등지의 양말공을 필두로 요크셔, 랭커셔의 모직물공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기계 파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은 오히려 더 발전하였으며, 공장의 자동화는 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성과들이 방직, 방적 산업 및 관련 산업들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다.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새로운 과학 시대,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고도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갖춘 AI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직업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직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AI 로봇의 활용과 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다)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한다. 반면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존할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여 생태계의 안정을 깨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태 중심주의의 관계 설정 방식은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이 AI 로봇을 '인공 노예'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로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818년에 발표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는 괴물의 절규가 마음을 울린다. "나는 네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 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도 당신과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라) 우리는 앞으로 AI 로봇을 두고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 로봇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 지능을 모방하고 인간 역할을 대신할 AI 로봇은 곧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윤리적 행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AI 로봇이 자유 의지 또는 도덕감을 가진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AI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통적 윤리 규범을 알고리즘화하여 입력하는 하향식이고, 다른 하나는 AI 로봇이 다양한 현실 상황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보상을 받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별 행위 지침을 학습해 나가는 상향식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인간처럼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행위를 하는 AI 로봇의 개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가령, 환자를 돌보는 AI 로봇을 가족과 같은 특수한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 또는 보조 간호사로서 보편적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를 고민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AI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왜곡이나 비윤리적 정보의 수용으로 인해 AI 로봇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바)와 (사)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의 한계점을 논하시오. (800±100자)

(마) 개인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이기도 하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예컨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업적이 포상의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그릇된 통념이다.

(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란 독일 경제학자 슘페터가 저서『경제발전론』(1912)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창조적 파괴를 경영자가 기술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혁신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혁신은 새로운 발명뿐만 아니라, 새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값싼 원료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 방법을 찾아내는 일 모두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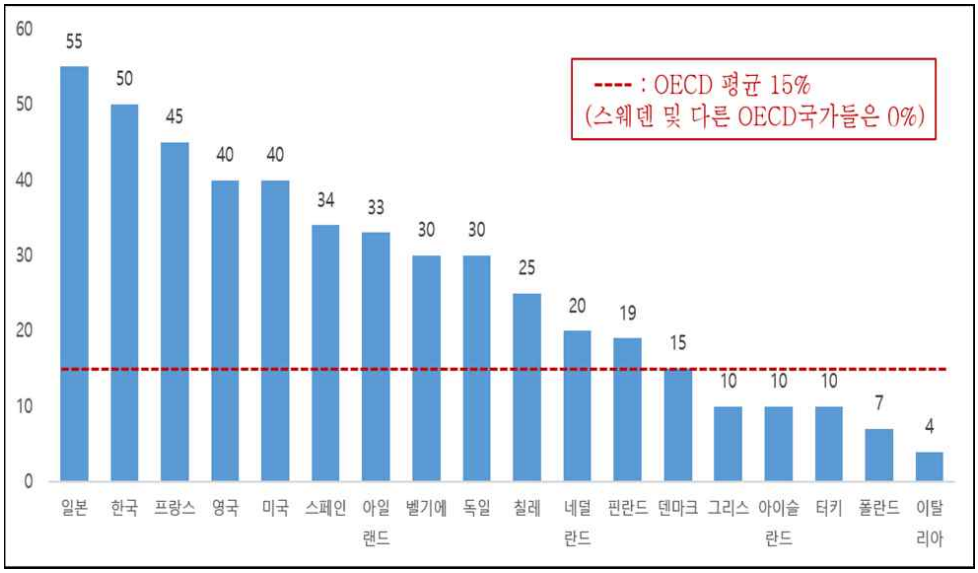
이윤은 혁신적인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한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를 다른 기업가들이 모방하여 보편화시키면 이윤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적 경영자가 나타나 다시 창조적 파괴를 하게 되면서 이윤이 새롭게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로 인해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혁신이며 기업가 정신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혁신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품과 서비스의 변혁을 시도한다. 이러한 변혁은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사) 스웨덴의 최고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던 1984년, 제약회사 아스트라(Astra) 설립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던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아스트라의 주식이었고, 이를 상속받은 자녀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 주식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자 주가는 폭락했다. 설립자의 자녀들은 물려받은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도 상속세를 다 내지 못했으며, 재산을 대부분 잃고 스웨덴을 떠났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 제네카(Zeneca)에 팔렸으며, 합병을 통해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스웨덴 기업가와 회사들이 해외로 떠났다. 스웨덴의 유명 가구회사인 이케아(IKEA), 우유 팩 발명 및 제조회사인 테트라 팩(Tetra Pak) 등이 아스트라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본사를 이전했고, 스웨덴의 부호들 역시 노르웨이 등 상속세 비과세국으로 이민 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높은 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웨덴 중산층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망자(피상속인)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데,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 경우 상속세의 절대적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의 삶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참고: OECD국가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단위: %, 2020년 기준)

(*)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책임 활동을 말한다. 즉, 기업의 지속적 존속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시장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환경(E) 분야에서는 친환경 원료나 제품 사용, 친환경 사업장 구축,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 사회(S) 분야는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성과를 높이고 업종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에서는 직원과의 소통 및 종업원과 경영자의 화합을 중시한다.

제 4 강 2024학년도 기출2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최근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 삶의 문제이자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보다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특히, 이 문제는 인간이 타자와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인간과 AI 로봇과의 관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AI 로봇을 대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된 윤리적 접근법들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논하는 것이다.

분석의 틀이 되는 윤리적 접근법으로는 제시문 (가)에서 의무론, 결과론, 담론 윤리적 접근, 책임 윤리적 접근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며, 제시문 (가)는『생활과 윤리』및『윤리와 사상』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반기계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산업혁명'에 연관된 역사적 사건이다. 제시문 (다)는 마찬가지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대비하였다. 제시문 (다)는『통합사회』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고, 소설『프랑켄슈타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라)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의 AI 개발 기술에 대해 소개한 글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AI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주제는 현행 고등학교『국어』교과서와『독서』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문제와 제시문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제시문을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인간이 타자와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인간과 AI 로봇과의 관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윤리적 접근법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맺음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과 AI 로봇과의 관계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기존의 여러 관계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윤리적 접근법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상황에 확대 적용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제시문 (나)~(라)에 나타난 인간이 AI 로봇을 대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것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골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한다 함은, 우선 각 제시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윤리적 접근법을 선택하고, 선택한 윤리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제시문의 요지를 재진술한 다음, 각 제시문이 AI 로봇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논하는 것이다. 이때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윤리적 접근법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과제이므로 네 가지 윤리적 접근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 인간과 AI 로봇과의 공존이라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단순히 기술 발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과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단원,『생활과 윤리』교과서의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단원에서 확인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점들을 이용하여 재구

성한 지문이다. 전반부에는 행위 중심 이론인 의무론과 결과론의 판단 기준 및 의의가 제시되고, 후반부에는 규범 체계 구성의 상호작용성, 합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담론 윤리적 접근법과 윤리적 책임을 책임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한 책임 윤리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제시문 (가)는 학생들이 (나), (다), (라)의 입장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학생들은 (나), (다), (라)가 어떤 윤리적 접근법으로 인간과 AI 로봇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분석 과정에서 인간과 AI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발견해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산업혁명기의 러다이트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AI 로봇의 등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T.S. 애슈턴의『산업혁명 : 1760-1830』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 연구단의『인간 너머의 인간』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또 러다이트 운동 이후 기계의 발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추론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칸트의 의무론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밴덤과 밀의 공리주의의 특징을 찾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통합사회』교과서 '인간과 자연환경'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통합사회』교과서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대비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인간과 자연 사이를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하고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을 인간과 AI 로봇에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제시문 (다)의 마지막 부분에는 1818년에 발표된 메리 셸리의 소설『프랑켄슈타인』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괴물'의 절규를 통해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 인식을 유도한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 (다)는 인간이 AI 로봇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존중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책임 윤리적 접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덧붙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결과론(공리주의)도 공존의 대상을 인간에서 AI 로봇으로 확대한다면, 제시문 (나)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여지가 있다.

제시문 (라)는 이중원 편『인공지능의 윤리학』중 목광수의 글「인공적 도덕 행위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AI 로봇을 인간처럼 행동하는 다시 말해 '준-도덕 행위자' 또는 '인공적 도덕 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로 개발하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기술은 널리 알려진 빅데이터에 의한 기계 학습 방식을 넘어서는 AI 개발 기술로,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모방하는 두 가지 방식의 기술을 혼합하여 적용한다.

제시문 (라)는 인간이 AI 로봇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이상,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AI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경우, 비윤리적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입력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목적과 활동 맥락에서의 행위 지침을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담론 윤리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AI 로봇의 행동은 결국 인간 사회가 구성한 윤리적 담론을 투영하게 될 것이고, AI 로봇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은 인간 사회가 윤리적 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와 합의를 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채점 기준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론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제시문 (나)~(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20%),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는 것"에 3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60%)

① 제시문 (가)에 제시된 4가지의 윤리적 접근법 중에서 제시문 (나)의 입장은 (가)의 '결과론', 제시문 (다)의 입장은 '책임 윤리적 접근', 제시문 (라)의 입장은 '담론 윤리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 (나)~(라)에는 각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된 핵심어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접근법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② 제시문 (나)~(다)의 입장을 분석하라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 지어 제시문의 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하였는지에 따라 가점한다. 다음으로 윤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였는지에 따라 추가로 가점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나)~(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윤리적 접근법을 하나 더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설명이 타당하다면 가점할 수 있다. 다만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을 명시하지 못한 경우	0점
제시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을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	5점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 지어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경우	10점
윤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입장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했거나 또는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 하나 더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경우	5점
각 제시문에 관련된 부분 당 총 20점	

채점 요소의 예		
제시문	윤리적 접근법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내용
제시문 (나)	결과론	일자리 증가,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
제시문 (다)	책임 윤리적 접근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 도덕적 책임
	결과론(추가 적용 가능)	AI 로봇의 안녕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포함
제시문 (라)	담론 윤리적 접근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인간 사회가 우선 윤리 규범과 윤리적 행동 지침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야 그것을 토대로 AI 로봇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현실 상황에서 칭찬을 받거나 실패를 겪으면서 행동 지침을 학습함,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
	의무론(추가 적용 가능)	도덕 행위자로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의지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30%)

① 앞서 서술한 내용과 연관 지어 두 번째 요구사항에 답해야 하므로 두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한 편으로 글로서 일관성을 지니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 특히 윤리적 접근법과 무관한 내용을 논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는 과제이므로,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윤리적 접근법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각 5점을 부여하며,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최대 20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30점)

채점 기준	배점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다룬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0점
앞서 기술한 내용과 관련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각 5점
※ 채점 예시 제시문 (나)~(라)에 각각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15점 윤리적 접근법 네 가지에 관련지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20점	
각 조건의 서술이 논리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경우	10점
제시문의 내용에서 머무르지 않고 통찰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5점
	총 30점

채점 요소의 예		
인간과 AI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	윤리적 접근법	예시
	의무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강조 최소수혜자 및 소외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결과론	사회의 발전 가능성, 인간 능력의 가능성 확대 AI 로봇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험성 제거
	책임 윤리적 접근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 AI 로봇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 대우와 도덕적 책임
	담론 윤리적 접근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AI 로봇 개발을 위해 윤리적 담론의 성숙이 필요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마)를 통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 특히 분배의 정의 기준을 활용하며, 제시문 (바)에서는 사회과 교육

과정 중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제시문 (사)에서는 <통합사회>에서의 시장경제와 금융,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 평가,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 특히 분배의 정의 기준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 및 발췌하여 공동체적 가치와 분배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의 연대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며 인간 사회를 분배 공동체로 본다.

제시문 (바)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슘페터의 혁신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설명한다.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과하게 추구되는 경우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는 기업가 정신이 억제될 수 있음을 유추 가능하다.

제시문 (사)는 <통합사회>에서의 시장경제와 금융, 사회정의와 불평등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기사 및 OECD 데이터를 이용해 제시한 내용으로서, 스웨덴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의 폐해에 대한 내용이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설명하여 이를 통해 공동선과 개인선의 조화가 필요함을 주지한다.

제시문 (아)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의 자유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지문 및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를 통해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유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본다.

3. 채점 기준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정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바) 및 (사)에서 도출되는 (마)의 정의관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각 30%를, 이러한 대립하는 정의의 관점을 보완책으로써 (아)에서 제시된 소설의 주제를 논하는 부분에 30%를,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문제점	- 공동체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창조와 변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15%
	해결방안	-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혁신적 파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개인의 선(경영자의 이윤 추구)과 공동체의 선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견지 ※ 구체적 사례 (과도하게 경쟁을 저해시키는 정부 규제 완화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15%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문제점	- 빈부격차 완화라는 공동선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저해한 결과 지적 -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의욕을 잃게 하고 기업 가치를 상실시키며 나아가 부의 해외 유출 혹은 기업해체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적시 - 상속세율의 국제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과도한 조세 부담 인지	15%
	해결방안	- 타국과 비교해 상속세가 개인의 의욕과 기업 활동을 저해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아야 함 - 상속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 구체적 사례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 인하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15%
앞서 분석을 제시문 (아)에 적용	사례의 적용	-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 활동과 생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 ※ 구체적 사례 (배출권 거래제 활용해 이산화탄소 감축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상, 기업의 자발적 기부 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 및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기회 제공,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시장에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25
글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나)는 AI 로봇의 발달이 인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인간 사회에 주는 전체의 혜택이 더 크므로 AI 로봇 기술의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좋은 것이라 보는 결과론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는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

임 인식을 중시하면서, 생태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인간과 AI 로봇 사이도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는 AI 로봇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책임 윤리적 접근이며, AI 로봇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균형과 안정을 이끌어 전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론적 접근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과 행위 지침 등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중요한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AI 로봇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의 의미 구성 과정의 과제를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담론 중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 AI 로봇이 학습해야 하는 '보편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접근도 관여한다.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한 조건은 네 가지다. 첫째, 인간 삶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AI 로봇 기술 발전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인간과 AI 로봇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AI 로봇의 윤리적 행동을 위해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AI 로봇이 발달함으로써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AI 로봇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837자)

[문제 2]

(마)의 지문은 공동체주의를 전제로 우연히 물려받은 능력이나 개인의 성과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에 따른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은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에 의해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에서 발휘될 혁신적 활동이나 위험을 무릅쓴 변혁의 시도가 저해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고용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덜어내는 것이 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등 타국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적 필요하다.

제시문 (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분배의 정의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와 생존에 제약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921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5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1

※ [문제 1]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 (다)에 나타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각각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800±100자)

(가) 도시화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이 몰려든 도시는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자 고층 건물, 공동주택 등을 지어 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 반듯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산업, 주거, 상업 등 기능별로 구역을 나눈 새로운 산업단지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도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은 풍요와 편익을 누리는 한편,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경험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각자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인간관계가 확산되었고, 이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인구 과밀에 따른 주거 불안, 교통체증, 범죄 증가,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졌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문제들이 서로 얽혀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격차를 유발하면서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도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나) 24시간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 떨어진다. 편의점의 점원은 손님이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거나 시선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언제라도 부담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실제로 점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점원의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점원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응대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편의점은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환한 조명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편의점의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거리를 밝혀주고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일본의 어떤 편의점은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릴 수 있게 한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한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부가 늘어나고 이전보다 상인과 거주민 중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여러 대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골목 상권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렇다. 도심 속 어느 후미진 골목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예술가들과 새로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 골목은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하지만 골목이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임대료가 오른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찾은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대신 그 자리에 고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지만, 골목의 개성이 없어지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주거의 면에서는 대중교통의 요지에 고소득자들이 모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화된다. 부유한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게 될수록 그 지역은 유행하는 상점, 카페, 레스토랑이 많아지고, 학교와 공원도 새로 들어선다. 이들은 도심으로 돌아옴으로써 통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생활이 제공하는 더 나은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한 접근성을 누린다. 반면 저소득자들은 주로 주거비 상승 때문에 도심 밖으로 밀려난다. 도심이 임금 상승과 경제적 계층 이동에 도움을 주는 더 나은 구직 기회와 더 좋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라) 도시는 왜 성공하는가? 도시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번성할 것인가? 도시의 내구력은 인간이 가진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 우리가 가진 상호 연결 능력은 우리 인간 종(種)을 정의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집단으로 사냥하고 사냥한 동물들을 공유하면서 인간이란 종으로 성장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도시 생활의 원시적 형태인 집단적 삶은 "인간다운 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인류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도시는 관찰, 청취, 학습을 더 쉽게 해주며, 엄청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시의 혼잡성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흐름을 창조한다. 인터넷은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의 벵갈루루에 모여 있는 IT 업계 종사자들이 보여주듯이 인터넷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결합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 우리 인간은 동료 인간들이 내보내는 청각, 시각, 후각 단서들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이다.

※ [문제 2]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3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60점을 배점한다.

문제 2

전체의 규율과 개인의 자율 간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제시문 (마)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 (사), (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마) 플라톤의 강령에는 위험해 보이는 유토피아적 접근법이 있는데, 이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점진적 접근법과 반대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이상국가가 정해져야만 한다. 이는 권력이 집중된 통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 독재로 흘러갈 것이다. 비판을 불허하는 독재자는 자신의 행위 결과가 선량한 의도와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독재자의 당대에 실현하기 불가한 유토피아적 과업을 후계자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국민이 감수한 고난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이상에 대한 플라톤적 신념뿐이다. 이는 돌멩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비타협적 급진주의, 탐미주의, 완전주의로서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낭만주의이다. 나는 이 점에 항의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설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만들 뿐이다. 이와 달리 점진적 사회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이란 요원한 일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제도적 방법이란 없다. 모든 인간의 요구는 불행을 피할 수 있다면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점진적 공학자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사회 최대의 악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상사회를 논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공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성 대신에 폭력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방법은 반복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과학적 자세를 가진다면 합리적인 타협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방법을 통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바) 새뮤얼슨은 제한 없는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프리드먼을 반대하면서, "사적 이윤만 추구해서는 우리의 강과 대기에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단순히 이기심만으로는 사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개인적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음으로써 맺어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호등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한다. 하지만 붐비는 도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울까? 잘 설계된 정지 신호 앞에서 나와 다른 운전자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누리는 자유의 산술적 총합은 커질까 아니면 작아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지 신호는 누군가에게는 출발 신호다."

하지만 새뮤얼슨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는 편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정부가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정부 개입을 무조건 옹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 실패한 접착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잇’을 개발한 A사(社)는 대표적인 아이디어 기업들 중 하나이다. 초기 경영진이었던 B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심하게 비판하는 경영진의 행위는 종업원의 자발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A사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A사에는 1년 내 개발한 제품으로 매출의 10%를 올린다는 ‘10% 원칙’과 4년 내 출시한 제품으로 매출의 30%를 올린다는 ‘30% 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의 하나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의 15%를 자유롭게 개인의 아이디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5% 원칙’이다. 직원들은 그 시간 동안 구상하는 내용에 대해 그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강요의 성격은 없어서, 15%의 시간을 개인의 아이디어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아)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려고 한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수제 쿠키를 생산하는 C사(社)는 2001년 설립 후 2007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다. C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들고 있다. C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쿠키는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에 있어 불리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주는 신뢰성과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C사 제품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수수료를 감면해줌으로써 C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1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45명의 발달장애인이 C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급여를 제공하였고, 10년 이상 장기근속 장애인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해졌다.

* 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제 5 강 2023학년도 기출 1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도시의 발전,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하여 단선적이거나 평면적인 이해를 벗어나 그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의도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는 두 가지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접하였을 '도시화'의 특징과 양면성을 제시문 (가)에서 일반화된 진술로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서 각각 소개하는 '24시간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교과서에서 '도시'의 특징으로 다루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문 (라)에서 제시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비판적 읽기는 첫 번째 과제에서 분석한 바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서술된 도시화 관련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을 교과 과정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을 만한 지점에서 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독서』 교과서에 실린 김찬호의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에서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일상 경험에 보다 밀착된 도시화의 사례로 편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리처드 플로리다의『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와 김현아, 서정렬의『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에서 주로 논의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심화하고, 도시화의 양면성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도시의 승리』제10장「평평한 세계, 점점 높아지는 도시」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인 상호 연결성을 간직한 도시는 마침내 혁신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저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두 가지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일반화된 진술로 설명하고 있는 '도시화'의 특징과 양면성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 즉, '24시간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가 '도시'의 특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는 관점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통합사회』교과서가 '도시화'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글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과제이다. 제시문 (나), (다)에서 다루는 '24시간 편의점'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다루어지는 소재이므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제시문 (나), (다)를 분석할 때, '24시간 편의점',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서술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서술해야 한다는 것, 즉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화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

제시문 (라)는『통합사회』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도시'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혁신에 대해 다루는 이 지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보다 최근의 사회상에 맞추어 발전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시문 (라)의 관

점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과제는 '비판적 읽기'를 요구하는데,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필자의 견해가 가진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항은 앞서 '도시화'의 양면성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관점이 '도시화'의 긍정적 양상을 강화하고 부정적 양상을 약화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통합사회』교과서 중 '생활 공간과 사회',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단원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도시화 관련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이는 도시와 도시화의 문제점에 대한 일반 진술이다. 학생들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사례가 드러내는 구체적 면모들을 문제가 요구하는 긍정적, 부정적 양상으로 분석하는 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독서』교과서에 실린 김찬호의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에서 발췌, 재구성한 지문이다. 편의점에서 도시인들은 시간이나 인간관계에 구애됨 없이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나 편의점이 판매라는 본래의 기능에서 나아가 도시의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하는 점을 근거로 편리나 풍요, 쾌적 등 도시화의 긍정적 양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점원이 표준화된 손님 응대 방식을 따른 결과 편의점에서의 인간관계는 '무관심'의 배려로 포착되었다. 이 자체는 편의나 효율이라는 긍정적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이런 형식적 인간관계가 인간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정적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다. 이 글은 리처드 플로리다의『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와 김현아, 서정렬의『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함께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심화하고, 도시화의 양면성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인 골목 상권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는 낙후한 동네가 '뜨는 골목'으로 바뀌면서 경제적, 문화적 활기를 띠다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소개하였고, 제시문의 세 번째 문단인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안 대중교통의 요지로 중산층이 모여들어 구도심이 재개발되는 한편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이 두 가지 예시는 공통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공간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유발함으로써 특정 공간 또는 특정 계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도시의 승리』제10장「평평한 세계, 점점 높아지는 도시」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글레이저는 이 책에서 '도시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 주장하며,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어떻게 번성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시문에서 도시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인 상호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학습을 통한 혁신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저자의 관점을 읽어낸 후, 이러한 관점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해야 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1]은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 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의 요구를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로 분량을 채우거

나, 합당한 근거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론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문제의 두 가지 요구사항인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 '24시간 편의점'과 (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나타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에 40%, 분석 내용을 토대로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것에 4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20%를 배점한다.
2.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문제의 요구사항은 '24시간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임을 주의하여 채점한다. ② 제시문 (가)에 나타난 '도시화' 관련 핵심어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지 확인한다. 제시문 (가)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도입하였다면 감점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나)와 (다)에서 각각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 모두를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④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에 대한 분석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40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채점기준</th></tr>
<tr><td colspan="2" rowspan="3">'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의
분석</td><td colspan="2">① '24시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기술한 경우, 20점을 감점함.</td></tr>
<tr><td colspan="2">② 제시문 (가)에 언급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서술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2">③, ④ 제시문 (나),(다)에 대해 긍정적인 양상과 부정적인 양상을 모두 기술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는 아래의 '채점 요소의 예'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함. 각 항목에서 한 가지 이상이 논리적으로 서술되면 점수를 부여함.</td></tr>
<tr><td colspan="2"></td><td>채점 요소의 예</td><td>배점</td></tr>
<tr><td rowspan="2">제시문
(나)
'24시
편의점'</td><td>긍정적
양상</td><td>• '24시간', '언제라도 부담 없이' → '편리'
• 편의점에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 '소비의 중심지', '풍요'
• '표준화' 되어 있는 손님 응대 → '형식적인 인간관계', '업무처리 목적', '편리', '효율'</td><td>10</td></tr>
<tr><td>부정적
양상</td><td>• '경광등', '비상시 사이렌' → '범죄 증가'
• '표준화' 되어 있는 손님 응대 → '형식적인 인간관계', '무관심', '인간 소외'</td><td>10</td></tr>
<tr><td>제시문
(다)</td><td>긍정적
양상</td><td>• '노후한 동네의 재개발', ' → '편리', '쾌적'
• '특색있고 다양한 볼거리', '매력적인 장소', '유행하는 상점, 카</td><td>10</td></tr>
</table>

'젠트리피케이션'		페, 레스토랑', '학교와 공원', '더 나은 편의시설', '다양한 문화시설' → '풍요', '쾌적'	
	부정적 양상	•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이 ~옮겨 간다', '저소득자들이 ~밀려 난다' → '계층 간 격차' • '후미진 골목 ↔ 뜨는 골목', '도심, 대중교통 요지 ↔ 외곽' → '공간 불평등'	10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우선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② 문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다. 의의나 한계 중 어느 하나를 서술하지 않았거나 제시문들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감점한다. ③ 제시문 (라)에는 저자의 관점이 지니는 한계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 이때 제시문 (나), (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타당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나), (다)와 무관하게 서술하였다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총 배점 40점)

구분	채점기준	
제시문(라) 관점의 의의와 한계	① 제시문 (라)의 관점을 요약하기만 하고, 그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밝혀 쓰지 못한 경우 감점함.	
	② 의의와 한계를 모두 쓰지 않은 경우 감점함. 또한 의의와 한계 중 어느 하나라도 제시문들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 감점함.	
	③ 의의와 한계를 모두 쓰고, 각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였는지,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의의와 한계를 발견하였는지,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등에 따라 가점함	
	채점 요소의 예	배점
관점 파악의 정확성	제시문 (라)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도시는 상호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주고, 학습을 통한 혁신을 쉽게 만들어 준다.	10
의의의 서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진술로 의의를 서술할 수 있음. • 이 관점은 '도시의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게 해 준다.' • 이 관점은 '도시의 혼잡성의 긍정적인 면을 알려준다.' • 이 관점은 '미래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0
한계의 서술	제시문 (나), (다)에 나타난 '도시화'의 부정적인 양상과 연관지어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음. • 그저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언제나 이상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형식적 인간관계'는 '무관심'과 '인간 소외'를 일으키기도 한다. •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연결되려 하는 경우, 불평등이나 차별이 일어나기도 한다.	10
논리적 타당성 및 창의성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가점할 수 있음. • 각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였는지 • 통찰력, 창의력을 발휘하여 의의와 한계를 발견하였는지 •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등.	10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총 배점 20점)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합적 관점', '합리적인 선택', '민주주의' 등에 관한 내용과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국가와 시민의 윤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 즉 전체적 규율이 개인적 자율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적 자율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바), (사), (아)의 내용을 일관되게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와 <경제>에서 배우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시문 (사)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기업의 자율적 혁신', 제시문 (아)는 <통합사회>에서 소개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수험생으로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논쟁이나 사례가 모두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관한 실천적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제시문 (바), (사), (아)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사태가 제시문 (마)에 바탕이 되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점, 다시 말해, 제시문 (바), (사), (아)의 논쟁이나 사례가 제시문 (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바, 이 점을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칼 포퍼가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그 전제로서 논증한 것이 바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칼 포퍼의 논리는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철학을 당시 개인의 자율에 방점이 있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내지는 보수주의적 반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한 결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와 동서 냉전의 원인이 되는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인데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계기로 다시 '닫힌 사회'로 돌아가려는 사회적 힘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헤겔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이 칼 포퍼의 핵심적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단순한 반대편이 아니라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개입을 논리적으로 긍정하는 점에서 자유방임주의와 차원을 달리한다.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은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개입에 관한 방법론의 차원으로, 단 한 번의 치밀한 의지의 실현을 통해서 세상의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기획이 그 반이성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그 방점이 있다.

이러한 칼 포퍼의 주장은 지금도 상당히 타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결코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의 개입이 시장과 사회의 자율성을 축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결코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은 굳이 이론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최근 '자율 규제'에 대한 관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시장과 사회의 자율과 창의가 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개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서로 상황이 다른 다양한 실천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의 사례는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에 관한 새뮤얼슨과 프리드먼 사이 입장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둘째의 사례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진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제품이 개발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셋째의 사례는 비교적 최근 관심사가 되었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리어 시장의 자율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수험생으로서는 우선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대비가 되지만 결코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에 국가적 개입이나 조직적 규율의 방법론 차원에서 시장과 사회의 자율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문제점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례별로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시장이나 사회의 자율과 갈등하는 상황을 핵심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이 가지는 실천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3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60점을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6.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규율과 자율 간의 합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한 부분에 20%, (바), (사), (아)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에 각각 20%, 그리고 서론과 결론 부분에 각각 5%,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7.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아래에서 제시된 답안의 형식과 달리, 서론과 결론을 통합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 (바), (사), (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답안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론+결론=10점], 서론과 결론을 (마)에 대한 설명에 통합해서 정리한 다음에 (바), (사), (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답안이 있을 수 도 있는바 [(마)=

20점+10점], 답안의 형식과 상관없이 내용에 빠짐이 없고 논리가 일관된다면 좋은 점수를 부여할 것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서론	- 전체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리적 주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함. - 합리성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초래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 요구되는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주의적 합리성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함.	5
제시문 (마)에 대한 설명	- 유토피아적 접근방법 : 하나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이상에 대한 플라톤적 신념은 독선과 폭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초래함. - 점진적 접근방법: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고 인간이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사회공학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이루어야 함. - 합리성에 관한 관점: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요구되는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필요함을 명시 ※ 점진적 접근방법을 규율 없이 자율만 강조한 자유방임으로 해석하면 주요 감점 요인임.	20
제시문 (바)에 대한 분석	- 상황적 정의: 새뮤얼슨은 개인(개체)의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전체)의 협력이나 강제가 필요하다고 봄. 시장이 잘 작동 되지 않을 때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10점) -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간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관점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나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와는 차별성을 가짐.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모두 허용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함. (10점) ※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에서 개인적 자율의 측면을 놓치면 감점 요인이고, 잘 설명하면 가점 요인임.	20
제시문 (사)에 대한 분석	- 상황적 정의: A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풍토와 '15% 원칙'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0점) - 분석한 결과: A사라는 전체(조직)와 개인(구성원) 간에는 '15% 원칙'이라는 '규율'이 존재하지만, 이 규율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학습하려는 과학적인 자세를 보임. 따라서 제시문 (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함. (10점) ※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에서 전체적 규율의 측면을 놓치면 감점 요인이고, 잘 설명하면 가점 요인임.	20
제시문	- 상황적 정의: C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수의 장애	20

(아)에 대한 분석	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10점) - 분석한 결과: '국가'라는 전체와 사회적 기업인 C사는 개체 간의 관계임. C사는 정부의 개입(즉,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 인장애인 고용 확대를 실현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오히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이는 타인과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 타협적 노력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민간은 자생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회복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함. (10점) ※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에서 개인적 자율(사회적 기업의 자율적 고용)의 측면을 놓치면 감점 요인이고, 잘 설명하면 가점 요인임.	
결론	- 개인적 자율을 존중하는 전체적 규율: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바, 위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부합함. - 이상적 독선이 아닌 점진적 타협: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는 이상적이고 독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위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부합함.	5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도시화는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

(나)에서 24시간 편의점은 도시의 곳곳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느 때나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소비의 중심지인 도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도시화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편의점에서 점원과 손님 사이의 의사소통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처럼 도시에서는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는데, 이것은 도시에서의 일상이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줄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해져서 '인간 소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한 동네가 재개발'되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도시화의 긍정적 양상을 보여준다. 도시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하지만 도시 안의 모든 공간이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은 발전하지만 다른 공간은 그렇지 못해 공간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것이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정적인 면이다.

(라)는 도시가 사람들을 연결해서 엄청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이 관점은 도시가 성공하고 미래에도 계속 번성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해 주는 도

시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하지만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연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소통 노력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898자)

[문제 2]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점진주의적 사회공학 모두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바, 제시문 (마)는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초래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주의적 합리성 관점을 견지하여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무엇이 최선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타협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사), (아)는 규율은 필요하지만,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에 부합하는 사례들이다. (바)의 새뮤얼슨은 개인의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자유방임주의와는 그 전제가 다르며, 국가가 간섭하는 목적이 개인의 자유나 이익 추구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배척한다. (사)의 A사는 구성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15% 원칙'이라는 규율에 따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바,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점에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으로 볼 수 있다. (아)의 C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다수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어떤 점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다른 점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나아가 여러 경제주체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는 점에서 타협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이라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887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6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2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비유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교육에 관한 비유를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800±100자)

(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나 이해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가 사람들이 그 대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다. 세상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각자 다른 비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가족'에 비유한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실험실'로 비유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관계가 중시되고,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모험이 중시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위계질서와 조화가 핵심 가치로 강조되지만 평등과 개성은 부각되지 않는다. 반면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평등과 독립적 사고가 우선적인 가치로 부각되지만 상대적으로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흐려진다.

학생과 스승의 관계에 대한 비유 중에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이다. 스승을 왕과 아버지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 비유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위상이 매우 높게 여겨졌다. 그러나 바로 이 비유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나 교수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교육은 한국 사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창의성 부족이라는 난제에 봉착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제지간에 대한 이 '한국적 비유'에 있는지도 모른다.

개인, 가정, 조직, 국가에는 나름의 비유가 작동한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비유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비유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비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립니다.
퍼부으면 퍼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 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은 어느 새 저렇게 자랐습니다.
물이 모두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 버린다고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는 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다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헛수고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흘러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물을 주면,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 이어령,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다비드> 상을 만들 때 사용한 돌은 본래 조각가 시모네(Simone da Fiesole Ferrucci, 1437~1493)가 거인을 만들려고 작업하다가 실패해 작업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돌이었다. 이 대리석은 높이가 성인 키의 4~5배에 달할 만큼 거대했는데 시모네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망쳐 버린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시모네가 절단했던 돌 모양에 적합한 자세의 인물을 조각할 수 있는지 숙고한 후, 작업장에 그 돌을 달라고 요청했다. 작품 완성을 포기하고 있던 책임자는 어차피 지금의 상태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켈란젤로에게 돌을 넘겨주었다. 그 돌만으로는 인물 전체를 조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미켈란젤로는 다른 돌을 더 사용하지 않고 훌륭하게 <다비드> 상을 완성했다. 여전히 끝부분에 시모네의 끌 자

국이 남아 있긴 했지만, 미켈란젤로는 죽어 있던 돌덩어리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이룬 것이다.

수많은 걸작을 만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업 과정에 대해, 모든 돌덩이 안에는 조각상이 들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돌에서 해방될 때까지 작업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제대로 훈련받은 조각가가 돌을 탓하지 않듯, 사람을 다루는 교사는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막돌은 막돌대로, 대리석은 대리석대로, 돌의 성질과 상태에 알맞은 작품을 만들고 의미를 이끌어 낸다. 그 어떤 돌이든 돌을 접하는 순간, 자신의 손과 끌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변모할 그 돌을 상상하는 예술가로서의 교사가 필요하다.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제시문 (마)~(사)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각 사례의 해결방안을 유형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00±100자)

(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사가 건물 소유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화재보험사의 비용을 늘어나게 하여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적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내야 할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보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입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다.

(마) 사람들은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높은 젊은 시기에 소비를 줄여 저축하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 노후를 대비한 자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

들은 자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하려 한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에 대한 정보가 가입자에 비해 적은 연금보험회사는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긴 사람들이 주로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정부는 빈곤 상태에 빠진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일종의 보험으로 인식하여 복지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노후를 대비한 민간 연금보험상품의 구매를 줄임으로써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다.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1982년에 제정됐다. 교특법은 운전자들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법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교특법은 입법 목적과 달리 피해자 보호 기능보다는 운전자 보호 기능에 치우쳐 인명(人命)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은 오랫동안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주인 주주들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기업 경영을 담당할 경영자를 선임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주주인 투자자보다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판매할 때, 경영자는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비례한 가격에 판매하려 하고, 반면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수익성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평균가격에 판매하지 않으려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주로 구매하게 된다.

기업은 배당금을 올려 자신의 미래 수익성이 높다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만이 배당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의 변화를 보고 사업안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을 파악할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높은 가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6 강 2023학년도 기출 2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비유는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을 보다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비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유를 위해 사용하는 대상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비유를 위해 사용하는 대상이 부각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부각하지 않는 면도 있어 대상이 지니는 모든 측면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어려워지기도 하며, 때로는 대상이 지니는 어떤 측면을 왜곡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유를 접할 때에는 그 비유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균형이 흐트러지는 면은 없는지, 왜곡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유가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이는 비판적인 국어 사용을 위해 중요한 능력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 문항에서는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제시문 이해 능력과 자료 분석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관점을 보여 주는 글로서 제시하였고, 제시문 (나), (다)는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수험생들이 작성한 글을 통해 우선적으로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제시문 (나), (다)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시문 (나), (다)에서 분석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제시한 3개의 글은 모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선택하였다. (가)에 제시된 최인철의 <프레임>은 그 내용의 일부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2009, 창비) 등에 수록되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인데,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나)에 제시된 이어령의 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역시 널리 알려진 시로서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 글이다. (다)는 조르조 바사리의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에 수록된 미켈란젤로 일화와 <교육마당21>에 실린 시 <교사여 배움에 게으르지 말라>를 합하여 각색한 것으로,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 (가)를 읽고 비유의 기능에 대해 파악한 바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비유를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논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비유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비유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1) 대상에 대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여 그 특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2) 한편으로 대상의 어떤 측면은 드러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추는 기능을 한다.
3) 이것이 대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영향을 미쳐 왜곡되거나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를 통해 이와 같은 비유의 기능을 읽어 내고 간결한 글로 요약하여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사용된 비유를 찾고 그러한 비유의 기능을 분석한 후 비판해야 한다. 비유의 기능을 분석할 때는 대상의 특정한 면을 부각하는 기능과 그 외의 다른 면을 감추는 기능에 분석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시문 (나)에는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비유가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담겨 있으므로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을 분석할 때에도 학생과 교사 각각에 대한 분석 내용이 균형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용된 비유: 아이들은 물을 주면 스스로 성장하는 콩나물로, 교육자는 물을 주고 콩나물이 자라기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비유되었다.
2) 비유의 기능 분석(비유로 인해 부각되는 면): 이러한 비유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 배움을 획득해 나가는 주도성을 가진다는 점(학생에 대한 분석), 그 과정에서 교육자의 조력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교사에 대한 분석).
3) 비유의 기능 분석(비유로 인해 감추어지는 면):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학생에 대한 분석), 교육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에 맞는 다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교사에 대한 분석).
4) 이에 대한 비판: 이러한 비유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처치를 수행하는 교육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험생들이 작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예시이고, 이 외에도 타당한 분석이 제시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비유를 찾고 그러한 비유의 기능을 분석한 후 비판해야 한다. 역시 비유의 기능을 분석할 때는 대상의 특정한 면을 부각하는 기능과 그 외의 다른 면을 감추는 기능에 분석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시문 (다)에도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비유가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담겨 있으므로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을 분석할 때에도 학생과 교사 각각에 대한 분석 내용이 균형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용된 비유: 교사는 조각가, 학생은 조각의 대상이 되는 커다란 돌덩이로 표현되었다.
2) 비유의 기능 분석(비유로 인해 부각되는 면): 학생은 저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학생에 대한 분석), 훌륭한 교사는 그러한 잠재력을 관찰하고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교사에 대한 분석).
3) 비유의 기능 분석(비유로 인해 감추어지는 면): 학생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학생에 대한 분석), 가르침의 과정에서 교사도 학생의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교사에 대한 분석).
4) 이에 대한 비판: 이러한 비유로 인해 자칫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험생들이 작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예시이고, 이 외에도 타당한 분석이 제시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의 기능, 즉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드는 기능, 대상의 특정 측면을 부각하는 기능, 그 외의 다른 부분은 감추는 기능을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교육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러한 비유가 부각하는 면과 감추는 면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비유의 기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에서도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일화를 활용하여 교육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비유가 부각하는 면과 감추는 면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비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 나타난 비유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에 30%,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에 나타난 비유와 그 기능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각각 30%씩 총 60%,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가)에 제시된 비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진술해야 한다.

①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비유의 기능 중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드는 기능이 언급되었는가(10%)

②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하는 기능이 언급되었는가(10%)

③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감추는 기능이 언급되었는가(10%).

3. 제시문 (나)에 제시된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배점 30%).

<table>
<tr><th></th><th>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th><th colspan="2">배점</th></tr>
<tr><td>① 사용된 비유</td><td>교육이 '콩나물을 기르는 일'에 비유됨.
아이들은 물을 주면 스스로 성장하는 콩나물로, 교육자는 물을 주고 콩나물이 자라기를 관찰하고 기다리는 존재로 표현됨.</td><td colspan="2">5</td></tr>
<tr><td rowspan="2">② 특정한 면을 부각하는 기능</td><td>학생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 배움을 획득해 나가는 주도성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함. (학생에 대한 기술)</td><td>5</td><td rowspan="2">10</td></tr>
<tr><td>학생이 배움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자의 조력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함. (교사에 대한 기술)</td><td>5</td></tr>
<tr><td>③ 특정한 면을</td><td>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이 서로 다르므로 학생들의 개별 특</td><td>5</td><td>10</td></tr>
</table>

감추는 기능	성을 고려해야 함이 드러나지 않음. (학생에 대한 기술)		
	교육자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성장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음. (교사에 대한 기술)	5	
④ 이에 대한 비판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그에 따른 교육적 접근을 수행하는 교육자의 적극적 역할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음	5	

4. 제시문 (다)에 제시된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배점 30%).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	배점	
① 사용된 비유	교육이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예술 활동'에 비유됨. 교사는 조각가, 학생은 조각의 대상인 돌덩이로 표현됨.	5	
② 특정한 면을 부각하는 기능	학생은 저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 부각됨. (학생에 대한 기술)	5	10
	훌륭한 교사는 학생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점이 부각됨. (교사에 대한 기술)	5	
③ 특정한 면을 감추는 기능	학생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음. (학생에 대한 기술)	5	10
	교사도 학생의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음. (교사에 대한 기술)	5	
④ 이에 대한 비판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음.	5	

5.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해당 문항에서는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를 각각 분석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세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균형 있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배점 10%)

[문제 2]

1. 출제 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더 많다. 이 같은 정보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인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의 선택과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학습을 통해 중고차 시장부터 선물을 교환하는 관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논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이는 고교 교과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답안 평가의 핵심은,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제시문 (마)~(사)의 각 사례들에 적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유형별로 비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 즉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기술하고, 이에 정부 및 시장의 민간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제시문 (라)에서 기술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해 민간연금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한 예를 보여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상황을 제시한다.

제시문 (바)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여주며,『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민식이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상황을 제시한다.

제시문 (사)는 주식시장에서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예를 보여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은 배당금을 통한 신호보내기로 스스로 비대칭 정보의 문제에 대응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9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제시문 (라)에 기술한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사)의 각 사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각각 25%, 이런 비대칭 정보로 인한 문제점의 해

결방안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및 민간 경제주체의 정보 전달을 통한 자체 대응을 비교하여 논하는 부분에 각각 15%,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제시문 (라)로 제시문 (마)를 분석	배점
역선택 문제	- 역선택 문제: 연금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기대수명에 대해 판매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데서 발생함.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기대수명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여 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을 상실한다. 이에 연금상품 판매자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자보다 구입하는 자가 자신의 기대수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이 낮아짐을 설명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15
도덕적 해이 문제	- 도덕적 해이 문제: 빈곤 노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노후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함. 따라서 사람들은 고의로 젊은 시기에 노후를 대비한 민간연금상품을 덜 구입하여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운영하는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함을 기술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 정부의 복지제도가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연금상품을 덜 구입할 수 있음을 기술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10
	제시문 (라)로 제시문 (바)를 분석	배점
도덕적 해이 문제	- 도덕적 해이 문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책받게 되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정부는 이 문제를 완화하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일명 '민식이법')을 도입함. ※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25
	제시문 (라)로 제시문 (사)를 분석	배점
역선택 문제	- 역선택 문제: 제시문 (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경영자가 투자자에 비해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남.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는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려 한다. 이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지 않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	25

	식을 판매하려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함. ※ 경영자가 투자자에 비해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 투자자는 주식을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구매하려 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	
	제시문 (라)로 제시문 (마)~(사)를 종합적으로 분석	배점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방안	-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완화하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함.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 경제주체들은 스스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비대칭 정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제시문 (마)와 (바)는 비대칭 정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제시문 (마)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제시문 (바)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을 도입하여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게 됨. - 제시문 (사)에서는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함으로써 경영진의 사업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전달함. 이는 민간 경제주체가 정보 전달을 통해 스스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임. ※ 비대칭적 정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안(정부 시장개입, 정보 전달을 통한 민간경제주체의 자체 대응)을 식별하고 각 제시문의 해결방안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지 못하면 낮은 점수를 부여.	15
	글 전체	배점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비유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유에 사용하는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비유는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드는 기능, 구체적으로 말해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다른 측면은 감추기도 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대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영향을 미쳐 왜곡되거나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나)에서는 교육이 콩나물을 기르는 일에 비유되었다. 아이들은 물을 주면 스스로 성장하는 콩나물로, 교육자는 물을 주고 콩나물이 자라기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비유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 배움을 획득해 나가는 주도성을 가진다는 점, 그 과정에서 교육자의 조력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 따라서 교육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

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접근을 수행하는 교육자의 적극적 역할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다)에서는 교육이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예술 활동으로 비유되었다. 교사는 조각가, 학생은 조각의 대상인 돌덩이로 표현된다. 이러한 비유는 학생이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 훌륭한 교사는 그러한 잠재력을 관찰하고 그에 적합하게 지도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학생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 가르침의 과정에서 교사도 학생의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자칫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888자)

[문제 2]

제시문 (마)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모두 존재한다. 역선택은 민간연금상품의 구매자가 자신의 기대수명에 대해 판매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평균 기대수명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여 민간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을 상실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한편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노후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젊은 시기에 민간연금상품의 구입을 줄이려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제시문 (바)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운전자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시장에 개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사)에는 주식시장에서 경영자가 투자자에 비해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 있다.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가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려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시문 (마)와 (바)는 비대칭 정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제시문 (바)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을 도입하여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게 된다. 마지막 제시문 (사)에서는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하여 경영진의 사업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전달함으로써, 민간 경제주체가 스스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한 사례이다. (947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7 강 2022학년도 기출문제 1

※ [문제 1]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 (라)의 의사소통 층위와 기능을 분석하되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시오.

(800±100자)

(가) 의사소통은 서로 말이나 글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행위이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는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소통의 참여자인 발신자(화자, 필자)와 수신자(청자, 독자),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 소통 맥락(목적, 상황) 등 여러 구성 요소들이 개입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 낸다. 이러한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은 사회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확장될 수 있다. 대중매체에 글을 쓰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이며, 세대와 세대, 직업과 직업 사이의 의사소통은 사회와 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다. 곧 의사소통은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기능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지식을 공유하거나 감정을 나누며 태도를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면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분위기를 바꾼다. 가족이나 세대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는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담론을 공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곧 의사소통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감을 형성한다.

(나)

앞부분 줄거리 : 육이오 전쟁으로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동민)'의 집으로 외가 식구들이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 게 된다. 어느 날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빨치산인 삼촌의 소식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 저주를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체념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으면서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한다. 삼촌이 온다고 한 날,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 놀란 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타이르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구렁이를 보낸다.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 애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헐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매나 수고시렀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뫔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혔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펜안히 거처험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툭툭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 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댓 숟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 한 다래끼: '한 판'을 뜻하는 방언. ** 사분: 사부인(査夫人). '안사돈'의 높임말.

*** 터주: 집터를 지키는 지신(地神). **** 구완: 아픈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을 간호함.

(다)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된다. 옷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옷에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라)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대들이 약속한 보호 구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마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홍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가 다만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억될 때라도, 기슭과 숲들은 여전히 내 백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그들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였듯이 이 땅을 사랑해 달라.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 달라. 그대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해 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 달라. 신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신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 홍인: 아메리칸 인디언을 이르는 말.

※ [문제 2]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3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60점을 배점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서로 다른 정의관 A, B를 바탕으로 아래의 세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안을 작성하시오. (총 분량 800±100자)

(1) 제시문 (바)에 나타난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공유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2) 제시문 (사)에 나타난 백신 패스 제도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3) 제시문 (아)에 나타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선호하는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제시문 (마)

A에서는 정의를 개인의 자유와 연관 지어 바라본다. A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보는 사상이다. 그렇지만 A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 A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A에서 개인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를 정의롭다고 여기는 견해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B에서는 정의를 공동체의 가치와 연관 지어 바라본다. B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그렇지만 B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와는 구별된다. B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좋은 삶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B에서 개인은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자발적인 봉사와 희

생정신을 발휘하여야 하며, 공동체는 개인이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 배려와 사랑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시문 (바)

마이크로소프트 사를 세운 빌 게이츠(Bill Gates)는 저작권 보호가 창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우리 회사의 베이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베이식을 돈을 주고 구매한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총액을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간 비용으로 나누었더니, 시간당 2달러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일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가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에 더 큰 이익이 됩니다."

한편, 리눅스의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것과 달리 비밀이 아니며 무료로 배포된다. 사용권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거나 복제할 수 있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는 저작권 공유가 창조적 정보 공유라고 주장한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미래의 사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기는커녕, 지금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시문 (사)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 제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완화해 주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백신 미접종자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 후 완치자 등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이들에 한하여 음식점, 영화관, 경기장 등의 출입을 허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들이 주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 점을 고려할 때,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시문 (아)

개인들이 각자의 힘만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

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갖춘 것이 복지 제도이다. 복지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 부담을 높이며 근로의욕의 감퇴를 초래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많은 복지 선진국은 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지향한다. 형평성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만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효율성이 높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형평성이 떨어지고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수준의 복지 제도를 운용할 것인지는 그 나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 낙인 효과: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제 7 강 2022학년도 기출 1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화법과 작문』과목에서 배우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층위와 기능들을 읽어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문제는 제시문 (가)에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층위, 의사소통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들 중 층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문 (나)가 내포한 문학 작품 특유의 의사소통 층위와 기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다)와 (라)에서는 의사소통 층위, 그리고 특히 지식 공유, 감정 교류, 태도 조정과 같은 의사소통의 세부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성격이 다른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거론하며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국어 교과서『화법과 작문』에 실린 의사소통의 원리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재구성한 것이다. 의사소통의 원리를 구성요소, 층위,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나), (다), (라)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제시문 (나)는『국어』에 실린 윤흥길의「장마」를 부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은 문학 작품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라는 복합적인 의사소통 층위를 담고 있는 예문이다. 제시문 (다)는『국어』에 실린 이민정의「옷 한 벌로 세상보기」의 일부분을 발췌, 재구성한 글로, 옷을 둘러싼 현재 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글이다. 제시문 (라)는『독서』에 실린 시애틀 추장의「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백인들에게 자신들이 살았던 땅을 사랑해 달라는 감정적 호소를 통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글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발신자, 수신자, 소통 내용, 소통 맥락 등으로 기술하고, 개인과 사회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층위들을 언급한 후, 사회적 담론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나)는 윤흥길의 육이오 때 이념의 갈등과 그 화해를 다룬 소설「장마」이다. (나)에 대해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의사소통, 화자와 청자,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소통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필요성을 말하는 글이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층위의 의사소통, 독자를 설득하고 옷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시애틀 추장의 글로 인디언과 백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을 보여준다. 백인들에게 땅을 사랑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이 모두 공동의 운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평가기준**

※ [문제 1]은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평가기준**

1. 제시문 (가)에 기술된 의사소통의 층위와 기능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의사소통 층위를 잘 나누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잘 분석하였는가에 따라 30%, (다), (라)의 층위와 기능을 잘 분석하였는가에 따라 각각 20%, 제시문 (다)와 (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였는가에 따라 2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따라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제시문 (나)	의사소통의 층위와 기능 1	① 의사소통의 층위: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의사소통 ☞ 개인과 개인의 의사소통. ② 의사소통의 기능: 감사를 표현(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함)하고 위로를 전달[외할머니는 할머니에게 삼촌(구렁이)이 편안히 거처할 것이라고 말함]. ☞ 감정이나 정서를 나누는 기능.	15
	의사소통의 층위와 기능 2	① 의사소통의 층위: 화자인 '나'가 불특정 다수인 청자에게 외할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하여 가족에게 얽힌 이야기를 전달함. 혹은 작가(윤흥길)가 독자에게 해당 가족의 서사를 전달함. ☞ 모두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 ② 의사소통의 기능: 빨치산과 국군의 가족으로 갈등하던 이들이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 정서적 유대를 가지는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 분단으로 인해 독자가 가지고 있던 정서, 신념, 태도에 대해 성찰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도모. ☞ 독자의 성찰과 변화를 꾀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	15
제시문 (다)	의사소통의 층위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임을 주장함. ☞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작가와 다수의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	10
	의사소통의 기능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의 공정성을 따져 옷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독자에게 설득함. 독자가 옷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를 조정하고자 함. ☞ 옷의 소비와 관련하여 독자의 변화를 꾀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고자 함).	10
제시문 (라)	의사소통의 층위	발신자인 '우리(홍인)'가 수신자인 '그대들(백인들)'에게 땅을 사랑해 줄 것을 요청함. ☞ 집단과 집단 사이의 사회적 의사소통(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도 있음).	10

	의사소통의 기능	수신자인 백인들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변화하기를 원함. 땅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간직한 곳으로 여기기를 원함. ☞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사회적 기능을 함.	10
(다)와 (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① 의사소통 층위에 공통점이 있음. ☞ 모두 사회적 의사소통임. (다)는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이며 (라)는 집단과 집단(혹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 ② 의사소통 기능에 공통점이 있음. ☞ 발신자가 해당 대상에 대해 수신자(독자나 청중)의 태도를 조정하기를 의도함 . ☞ 공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공유하거나 수호하고 함.	10
	차이점	① 의사소통의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는 세부적 방법에 차이가 있음. (다)는 지식과 정보를 (라)는 감정과 정서를 나누고자 함. (다)는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의 공정성을 알아야 한다고 함. 반면 (라)는 땅을 돌보고 기억을 간직하고 사랑해 달라고 함. ☞ (다)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라)는 감정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소통을 이루고자 함. ② 태도 변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모두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다)에서는 옷 입기라는 구체적인 행위나 습관의 변화를, (라)에서는 인간과 인간 나아가 인간과 환경이 공동운명체라는 사고로의 전환을 요구함. ☞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를 요청하는가 아니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는가의 차이가 있음.	10
전체		논리적 완성도	10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서로 다른 2개의 정의관에 관한 제시문 (마)를 통하여 <통합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사회> 과목과 <경제> 과목 및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저작권', <통합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인권 보장', <통합사회> 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복지' 등에 관한 제시문 (바), (사), (아)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통합사회> 과목의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한 내용이다.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공동체주의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사회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지만, <통합사회> 과목의 교과서들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문 (마)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합사회> 과목의 교과서들은 양자의 관점을 선악이나 우열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로 설명하는 바, 그 취지를 좇아 제시문 (바)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양자의 관점 각각에 입각하여 비교적으로 분석하도록 출제하였고, 제시문 (사)와 제시문 (아)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양자의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출제하였다.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 과목, <경제> 과목 <생활과 윤리> 과목의 일부 교과서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공유'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제시문 (바)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논리와 저작권 공유를 주장하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리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저작권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리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작권 보호의 논거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하거나 저작권 공유의 논거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답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제시문 (바)가 설명하는 저작권 보호의 논리나 저작권 공유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적절하게 원용하지 않거나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문 (사)는 <통합사회> 과목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권 보장에 관한 설명에 착안하여, 최근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패스 도입 방안'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일부 변형한 것이다. 수험생은 반드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느 입장을 선택하는지는 점수에 영향이 없으나, 그 입장을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중 어느 관점으로 정당화하는지는 중요하다. 백신 패스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리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리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백신 패스 도입을 찬성하면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거를 제시하거나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면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제시문 (사)가 설명하는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찬반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적절하게 원용하지 않거나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문 (아)는 <통합사회> 과목, <사회 문화> 과목의 일부 교과서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수험생은 반드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느 입장을 선택하는지는 점수에 영향이 없으나, 그 입장을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중 어느 관점으로 정당화하는지는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리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리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거를 제시하거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제시문 (아)가 설명하는 보편적 복지의 논리와 선별적 복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적절하게 원용하지 않거나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도 마찬가지이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3가지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질문 (2)에서나 질문 (3)에는 자신이 선택한 입장의 논거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동시에 제시하는 답안이 있을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를 동시에 선택하고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시에 논거로 제시한다면 질문의 취지를 벗어난 것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질문 (2)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고서는 질문 (3)에 대한 답안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경우이다. 그 반대의 답안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주

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그 자체로는 무차별적인 점에서, 질문 (2)에 대한 답안과 질문 (3)에 대한 답안이 동일한 관점을 취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점에는 영향이 없다. 셋째, 질문 (1), 질문 (2), 질문 (3)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답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질문 (1), 질문 (2), 질문 (3) 각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형식을 무시하고 채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일종의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면서 제시문 (바), 제시문 (사), 제시문 (아)와 무관하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하거나 선악 내지 우열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평가한다면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답안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3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60점을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6. 질문 (1), (2), (3)에 각각 30%, 30%, 3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등에 10%를 배정한다.
7. 각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질문 (1): 제시문 (바)	**저작권 보호**	· A(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 저작권 보호가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님을 명시(5%) - 저작물의 불법 활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저작물의 질을 낮춤으로써 시장경제 및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제시(5%) - 저작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5%) · A(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자 재량으로 최대 점수 부여 가능	15%
	저작권 공유	· B(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 저작권 공유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님을 명시(5%) - 저작물은 개인의 자산이자 공동체의 자산이므로 공익을 위해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5%) -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으로 이	15%

		어진다는 내용 또는 저작권 공유가 집단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5%) · B(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자 재량으로 최대 점수 부여 가능	
질문 (2): 제시문 (사)	**백신 패스 찬성**	· B(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 백신 패스 찬성이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님을 명시(10%) - 백신 패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제시(10%) -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내용 또는 백신 패스 제도가 집단주의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10%) · B(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자 재량으로 최대 점수 부여 가능	30%
	백신 패스 반대	· A(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 백신 패스 반대가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님을 명시(10%) - 기저질환 보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10%) -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즉 백신 미접종자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10%) · A(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자 재량으로 최대 점수 부여 가능	
질문 (3): 제시문 (아)	**선별적 복지 선택**	· A(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 선별적 복지가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님을 명시(10%) - 선별적 복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로 하면서 그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음을 언급(10%) - 선별적 복지를 통해 시급하고 중대한 사회적 지원을 우선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10%) · A(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자 재량으로 최대 점수 부여 가능	30%
	보편적 복지 선택	· B(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 보편적 복지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님을 명시(10%) - 개인은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에 나서야 하고, 국가는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 등 공동체적 가치의 함양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10%) -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내용 또는 보편적 복지가 집단주의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10%) · B(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자 재량으로 최대 점수 부여 가능	
논리적 완성도 등		· 글 안에서 A를 자유주의, B를 공동체주의로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 최대 5% 가점 부여. ·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특정 질문에 대한 우수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점수 부여. - 예시: 반대 관점에서 제기 가능한 비판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가)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다양한 층위,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살필 때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는 개인과 개인 층위의 소통으로, 감사와 위로를 나눈다는 정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층위가 있는데, 이 글의 화자나 작가가 청자나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 내용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육이오 전쟁 당시, 이념의 갈등을 초월한 화해의 가능성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소설의 맥락을 고려할 때 (나)는 전쟁과 분단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

(다)의 필자는 독자에게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는 독자가 옷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라)에서 발신자인 '우리'는 수신자인 '그들'에게 땅을 사랑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홍인과 백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층위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이 글은 백인들이 땅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공통 운명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청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

(다)와 (라)는 대상에 대해 독자(청중)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한 기능이 '공존'과 '상생', '공동의 운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다)와 (라)의 사회적 소통의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드러나는데, (다)의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옷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반면 (라)의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땅에 대한 기억, 돌봄,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즉 대상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나눔으로써 자연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934자)

[문제 2]

□ 질문 (1)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닌다. 저작물의 불법 활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저작물의 질을 낮춤으로써 시장경제 및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 저작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에 더 도움이 된다.

저작권 공유는 저작물이 공동체 안에 축적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닌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독점할 시, 정보와 지식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저작물을 공유하고 활용할 때, 창작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저작물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 (398자)

□ 질문 (2)에 관하여

○ 백신 패스 도입을 찬성하는 경우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한다. 공동체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한 공동체적 가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백신 패스 도입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 다만,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으므로 특정 집단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방식으로 백신 패스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 (229자)

○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 자유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국가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이 직접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문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확신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30자)

□ 질문 (3)에 관하여

○ 선택적 복지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적 복지에 찬성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선별적 복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로 하면서 그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고, 시급하고 중대한 사회적 지원을 우선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원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결과나 사회적 지원에 수반하는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67자)〔총 894자〕

○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보편적 복지에 찬성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자발적 봉사와 희생에 나서야 하고, 국가는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 등 공동체적 가치의 함양을 장려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지원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지원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획일성의 강요로 개인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64자)〔총 883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8 강 2022학년도 기출문제 2

※ [문제 2]는 경영 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가) 컴퓨터 공학 분야에는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일라이자는 1960년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의 컴퓨터 공학자 조셉 바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이 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챗봇의 이름이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 역할을 모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알고리즘(algorism)*에 따라 환자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한 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의문문으로 변형한 다음 되묻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제 남자 친구가 저를 여기로 오게 했어요."라고 하면 일라이자는 "당신의 남자 친구가 당신을 여기로 오게 했다고요?"라고 사용자의 말을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한다. 또한 "그 친구가 저보고 오랫동안 우울해 있대요."라고 하면 "당신이 우울해 있다니 슬프네요."라고 대답한다. '우울하다'라는 단어에 미리 대응시켜 놓은 '슬프다'를 덧붙인 반응이다. 일라이자와 대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라이자에게 애착을 느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라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라이자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일컫게 되었다. 일라이자 효과는 기계의 단순한 '공감하는 시늉'도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여지며 심지어 치유의 기능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 알고리즘: 정보 통신 분야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나)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을 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 이것은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을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바로 이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스스로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에서 인간은 머리에 플러그가 연결된 채 기계가 구현한 가상 세계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이 가상 세계를 실재로 인식한다. 현실 세계로 빠져나온 모피어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오에게 네오가 살고 있는 가상 세계의 실체를 알려주려고 그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네오 :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다구요?
모피어스 : 그렇게 믿기가 힘든가? 네 옷도 바뀌었고 머리와 몸에 있었던 플러그도 사라졌어. 네 머리를 봐. 지금 네 모습은 전자화된 이미지이지.
네오 :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피어스 : 그럼, 진짜가 뭔데? 너는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건데? 네가 생각하는 진짜가 촉각이나 후각, 미각, 시각을 뜻하는 거라면 그건 단순히 두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해.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하지. 우린 그걸 매트릭스라고 해. 한 가지 확실한 건, 인류는 21세기의 어느 시점에 모두 경탄하면서 A.I.의 탄생을 축하했었다는 거야.
네오 : A.I.라면 인공지능?
모피어스 : 기계 집단을 생산해낸 의식체계였지. 매트릭스가 뭘까?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야.

(라) 인간이 로봇에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로봇이 인간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 연관된다. 로봇에게는 최종 소비자가 있고, 그 최종 소비자는 어쩌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 가정을 돌보는 가정 로봇이나 여러 승객을 다양한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자동차, 부서 전체에 배정된 사무보조 로봇

등이 그렇다. 여기에는 설계자도 있는데, 그 역시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와 인간이 운전하는 운송 수단,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한다. 수많은 사람의 요구가 상충할 때 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 인간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 [문제 2]는 경영 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문 (사)와 (아)에 나오는 갑과 을의 사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800± 100자)

(마)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선택을 실행하는 데 드는 돈, 시간, 노력 등과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한다. 편익은 경제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이나 이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금전적인 것은 물론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수요를 형성하여 시장의 가격 결정이나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은 많이 팔리고, 그렇지 못한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의 행동은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방향을 결정한다. 소비자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즉,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절로 국부가 증진되고 풍요로움이 확대되어 공동선이 실현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방, 법질서 유지, 공공재 건설 및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더 이상의 개입이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간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에게 이와 같은 미덕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 이상고온에 따른 연이은 불볕더위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어나자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 함께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A국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하였다.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본인 설치비 부담률은 20~30%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 중 자가 부담액은 원래 460만 원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위의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구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년 대비 매년 약 10%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예산 소진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구의 수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A국의 시민 갑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보조금 지급 중단 소식을 듣고 결국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연도별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신규 설치 가구수>

(단위: 가구)

연도	2018	2019	2020	2021(예상)
가구수	1,090	1,200	1,350	970

(아) 대다수의 국가는 기후 변화 대응 조치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B국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자체 개발한 '탄소 저감 기술'을 이용해 재배한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제도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인증제 시행으로 지난해 B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총 7만 톤가량 감소하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사과이다. 1,500곳의 사과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가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농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가의 경우 사과 1kg을 생산할 때 평균 400g의 탄소가 발생하는 반면, 저탄소 농법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284g의 탄소가 발생한다. 3kg짜리 사과 한 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사과는 생산 과정에서 1,200g의 탄소가, 저탄소 사과의 경우에는 852g의 탄소가 발생한다. 저탄소 사과는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30%가량 높다. 을은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저탄소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제 8 강 2022학년도 기출 2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인공지능이 점차 발달하여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가는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각각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4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지문들은 관점 상 특정한 순서나 연결을 갖지 않은 채, 다양한 관점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또한, 문제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라고 하였으므로, 학생이 기존에 배웠을 인간과 기계 상호 간의 지배나 종속, 로봇 시대의 도래에 대한 비관론이나 낙관론 등과 같이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이해보다는 각각의 제시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문맥을 이해하고 그 속에 드러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각각 들어 있는 내용의 요지와 문맥을 파악하되 이를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읽어내는 사실적 이해와 각각 다른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파악하는 추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하는 글쓰기 구성 능력을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박현아의『인공지능, 말을 걸다』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부분은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일라이자는 컴퓨터 공학자 조셉 바이젠바움이 개발한 상담 치료용 챗봇이다. 이 기계는 사람이 한 말을 이용하여 되묻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진 기계인데, 이 기계와 대화하는 인간은 기계가 보여주는 단순한 반응에도 그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인간과 기계의 교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글을 읽어낼 수 있으며 기계가 가진 인간과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고등학교)국어』교과서에 실린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글을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인간과 기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차이점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의지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인간은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

제시문 (다)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으로,『(고등학교)언어와 매체』교과서에 실려 있는 영화 소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고, 실제 영화의 대사 중 일부를 발췌 편집하여 실었다. 제시된 장면은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를 벗어나 현실을 깨달은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를 만나 '매트릭스'에 대해 대화하는 부분으로,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나 통제라는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의 풍경을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그것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제시문 (라)는 존 브록만(John Brockman)이 엮고 김보은이 옮긴『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바라보는 석학 25인의 시선(Possible Minds)』라는 책에 실려 있는 앤카 드라간(Anca Dragan)의 글 「인간을 인공지능 방정식에 끼워 넣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 로봇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4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의 선입견이나 이분법적 구도를 배제하고자 각각의 지문들을 관점에 있어서 특정한 순서를 갖지 않도록 배열하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속에 다르게 담겨 있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에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 자신이 판단한 논지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완결된 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박현아의『인공지능, 말을 걸다』라는 책에서 일라이자 효과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발췌한 글로, '(기계에 대한) 애착', '정서적 교감', '이해와 공감' 등의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인간과 기계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이 글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읽어내야 한다. 제시문이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간과 기계의 감정적 연결의 가능성과 인간에 대한 기계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었는가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제시문 (나)는『(고등학교)국어』교과서에 실린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 발췌,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인간의 능력', '인간을 규정하는 특징',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 등을 핵심 어구로 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때 인간은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고, 고통과 결핍에 대응하여 인간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결코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은 이 제시문을 읽을 때 기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이라는 관점보다는 기계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휘해야 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나 가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다)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으로, 우선『(고등학교)언어와 매체』교과서에 실려 있는 줄거리 요약과 실제 영화의 대사 중 일부를 발췌, 재구성하였다. 제시된 장면은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를 벗어나 현실을 깨달은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를 만나 '매트릭스'에 대해 대화하는 부분이다. '가상 세계', '현실 세계', '실재' '인공지능',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 등이 내용 파악을 위한 핵심 어구이다. 네오가 자신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인 매트릭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부분, 그리고 모피어스가 기계 시스템이 극대화된 인공지능(A.I.)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인류가 인공지능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부분 등을 실어서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 같은 비판적 시각보다는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의 관점을 보여주려 하였다. 학생들은 이 글에 담겨 있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연결이 고도화되어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루는 전체 글의 논지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존 브록만(John Brockman)이 엮고 김보은이 옮긴『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바라보는 석학 25인의 시선(Possible Minds)』라는 책에 실려 있는 앤카 드라간(Anca Dragan)의 글 「인간을 인공지능 방정식에 끼워 넣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로 '인공지능이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의 요구의 상충', '요구의 통합' '결정' 등이 내용 파악을 위한 핵심 어구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 로봇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이 글에서 기계가 인간들이 가진 수많은 요구들을 통합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평가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평가기준**

1. 제시문 (가)는 일라이자 효과에 관한 글로, 인간과 기계 사이에 감정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현대에 로봇은 단순한 기계 시스템으로도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이 기계와 달리 지니고 있는, 인간만의 특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언급한다. 이는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된 것으로써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제시문 (다)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대화의 일부분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매트릭스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가상 세계이다. 기계가 인간의 감각까지도 구현하는 정도까지 발전된 기계화된 사회에서 인간과 기계는 구분되지 않는다. 기계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기계가 되는 미래의 세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으며, 로봇은 인간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2. 배점 기준은 제시문 (가)의 분석에 25%, (나) 20%, (다) 25%, (라) 20%를 부여하고, 글의 전체적인 논리의 완성도에 10%의 배점을 부여한다. 제시문 (나)와 (라)는 유사한 논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글로 분석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각각 20%의 배점을 부여한다. 제시문 (가)와 (다)는 일종의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므로 각각 25%의 배점을 부여한다.

3. 이 문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지, 기계화된 시대에 대한 가치판단, 향후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당위적 방향 제시, 인공지능 발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로봇에게 어디까지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의 윤리적 관점을 서술하기보다는 각 지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차별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나누어 묶는 방식으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각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기계가 지니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 또는 인공지능 시대 기계의 역할,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인터페이스) 등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4. 제시문 (가), (다)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 적어지거나(제시문(가)) 없어지는(제시문(다)) 내용으로 분석해야 한다. 제시문 (가)와 (다)에서 제시문 (가)는 인간과 기계가 동반자가 되어가는 현상이며, 제시문 (다)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없어지는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라)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을 보여줌으로써 기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지문으로서,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시문 (라)에서는 인간의 통합적 결정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5. 제시문 (다)에서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 노예가 된 인간, 인공지능의 통제, 인류의 멸망,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의 관점을 서술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6. 기계 사회를 보는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의 관점에서 서술하거나, 흑백논리를 강조한 이분법적 구도로 분석한 경우, 전체 논지에서 일방적인 인간의 우위성이나 기계 폄하, 기계 만능주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는 감점한다.

7.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보는 여타의 관점에 대하여, 학생이 명료성과 타당성, 창의성을 띤 답안을 작성한 경우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다.

제시문	핵심 내용	제시문의 분석 내용	배점
(가)	**인간의 교감 대상으로서의 기계**	* 인간과 기계는 정서적으로 교감, 감정적 소통, 애착, 이해, 공감, 치유하는 관계 * 인간과 기계의 공존 가능성	25%
(나)	**인간과 기계와의**	*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자 고유한 특성 - 감정, 의지, 유연성, 창의성, 결핍	20%

	차별성	* 결핍과 고통을 강조한 나머지 비관론적 결론을 내리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일방적인 인간의 우위성이나 기계 폄하를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다)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지 않음**	*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된 이미지, 전자신호,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A.I., 컴퓨터가 만들어낸 매트릭스의 세계 * 기계화된 인간 - 인간은 머리에 플러그가 연결되어 기계처럼 살고 있음. * 기계 시스템이 극대화된 인공지능(A.I.)의 세계 * 인간은 기계에 의해 시뮬레이션된 가상 세계를 현실로 인식함. * 인공지능은 기계 집단을 생산해낸 의식체계 *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 노예가 된 인간, 인공지능의 통제, 인류의 멸망,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기계 사회를 보는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의 관점에서 서술하거나, 흑백논리를 강조한 이분법적 구도로 분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가상·현실 논쟁을 중심으로 서술한 답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부여함.	25%
(라)	**인간과 기계와의 차별성**	* 로봇의 한계 –통합적 결정 능력의 부재 Ÿ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의 결정 능력 * 일방적인 인간의 우위성이나 기계 폄하를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20%
전체 글의 완성도		* 각 지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차별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계화된 시대에 대한 가치판단,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당위적 방향 제시, 인공지능 발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로봇에게 어디까지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의 윤리적 관점을 서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제시문을 나누어 묶는 방식으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각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기계가 지니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 또는 인공지능 시대 기계의 역할,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인터페이스) 등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함. *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이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여야 함. 제시문의 분석 순서는 글의 논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제시문들에 제시된 것 이상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을 발휘하거나, '낙관론'이나 '비관론' 내지 '지배'나 '종속' 같은 이항 대립적 구도를 내세워 각 제시문의 논지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함. *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명료하고 타당하며, 창의성 있는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함.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해야 함.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음.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음.	10%

[문제 2]

1. 출제 의도

제시문 (마)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와 <경제> 과목에서 다루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다루는 두 가지 정의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윤리적 정의론을 경제적 개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시문 (사)와 (아)에 기술된 개인의 결정을 제시문 (마)에서 설명된 경제적 개념과 제시문 (바)의 두 가지 정의론에 따라 분석하여 합리적 선택 여부와 어느 정의관에 부합하는지를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을 제공한다.

제시문 (바)는 정의에 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저절로 국부가 증진되고 공동선이 실현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반대로 개인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사)와 (아)에서는 각기 다른 개인의 소비 사례가 제시되었다. 합리적 선택의 개념과 제시문 (바)의 두 가지 정의관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 각기 다른 소비가 이루어진 이유와 의미가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주관적 편익과 비용의 비교 또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경영 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제시문 (마)에 기술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서술하는 부분에 15%, (바)에서 기술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사)와 (아)에 나타난 개인의 선택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데 각각 30%, 45%, 논리의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	합리적 선택의 의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경우를 선택하는 것	15
제시문 (사)를 (바)의 관점에서 분석	자유주의적 정의관 이해 여부	-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상	10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정의관 적용	- 비용과 편익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발전기 설치가 친환경적임에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 비용을 줄일 수 없게 되어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동체의 가치보다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합리적 선택에 해당하며,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부합 ※ 비용과 편익의 비교 과정을 서술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소비로 단순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낮은 점수 부여 ※ 윤리적 소비가 아니므로 합리적 소비(또는 선택)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 정답 아님	20
제시문 (아)를 (바)의 관점에서 분석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해 여부	- 인간이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행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사상	10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정의관 적용	- 환경 보호에 참여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효용이 커져서 비싼 가격도 기꺼이 감수했다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과를 구매한 것이 되므로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합리적 소비 - 개인의 편익은 일반 사과를 구매할 때와 변함이 없어 비용 증가가 편익을 넘어섰음에도 저탄소 사과를 구매한 경우는 합리적 소비라 볼 수 없고,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른 윤리적 소비에 해당 ※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무조건 윤리적 소비라고 기술하는 경우 감점 ※ 상기 두 개 항목(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중 하나만 서술하면 감점	35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간과 기계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일라이자 효과에 관한 글로 인간과 기계가 감정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시

사한다. 현대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 시스템만으로도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해져 인간의 동반자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고도화되면 제시문 (다)의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공존하여 현실 세계가 사라진 가상 세계가 중요하게 도래될 수도 있다. 기계가 인간의 감각까지 실재화할 정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과 기계는 구분되지 않으며, 미래에는 인간이 기계의 일부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다. 제시문 (라)에서처럼 기계는 인간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기계가 최첨단으로 발달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기계와는 다른 인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는 고통과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과 기계는 서로 교감하면서 공존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갈 것이다. 이때 인간은 기계가 갖지 못한 고유한 특성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803자)

[문제 2]

제시문 (마)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선택에는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 평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하였을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 이외에도 심리적인 만족도 포함한다.

경제주체의 하나인 소비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편익을 주는 상품을 사려고 하고, 이러한 활동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더라도 공동선을 위해 선택하는 윤리적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한다.

제시문 (사)와 (아)의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나 개인의 선택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시문 (사)에서 갑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편익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중단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발전기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소비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제시문 (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환경 보호에 참여하여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효용이 커져서 비싼 가격도 기꺼이 감수했다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과를 구매한 것이 되고,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합리적 소비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편익은 일반 사과를 구매할 때와 변함이 없어 비용이 편익을 넘어섰음에도 저탄소 사과를 구매한 경우는 합리적 소비라 볼 수 없고,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른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799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9 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1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 (다)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인간 사회의 소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800±100자)

(가) 구술문화는 말의 효과적인 사용과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훨씬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화이다. 구술문화에서는 보통 무엇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눈앞의 상대방과 열정적으로 논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술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자에 익숙한 사람들보다, 인간의 생활세계에 더 밀착해 있고, 주어진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구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연결한다. 목소리로 된 말은 사람들을 굳게 결속하는 집단을 형성한다. 한 사람의 화자가 청중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청중 사이에 그리고 화자와 청중 사이에도 일체감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만약 화자가 청중에게 자료를 주고 읽도록 하여 청중의 한 사람이 홀로 독서의 세계에 들어가면, 청중의 일체감은 깨진다. 구술을 통한 말하기, 듣기와 문자를 통한 쓰기와 읽기는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억술을 토대로 한 구술문화와 달리, 문자문화는 인간을 외워야 하는 과제로부터 해방시켰다. 문자문화를 통해 인간의 사유 능력이 확장되어, 눈앞의 세계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읽고 쓰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고독하고도 능동적인 활동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내적 경험은 풍부해진다.

(나)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모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끼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마안-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찝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 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듯 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다) 나는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라졌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곤 했다. 그러던 것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가지런해졌다.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그저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곤 했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걸어서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 보겠다고 까불어 댔으며, 글 쓴답시고 원고지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라)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휴대전화를 통해 다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A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이슈가 된 사회 현상에 대한 토론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다. B는 부모님께서 용돈을 입금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뻐하며, 바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영화 예매권을 보낸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즉시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온다. C는 해외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 안부를 묻는다. D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개인 방송에 접속해 웃고 떠들고 있고, E는 자신이 등교하는 모습을 찍어 누리 소통망(SNS)에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반응한다.

지금 우리는 거미줄같이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타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해도 혼자가 아니다.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2 제시문 (사)의 사례를 제시문 (마)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제시문 (사)의 캠페인이 제시문 (바)에 나타난 두 자연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800±100자)

(마) 개인 또는 기업 등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삼자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된다.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면 경제 주체는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해당 행위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보다 상품이 과다·과소하게 생산·소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는 독감 예방 접종을 들 수 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다. 자신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이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을 낮춰 준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독감 예방 접종의 소비량은 개인의 독감 예방 접종 편익과 주위에 주는 편익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결정에는 주위에 주는 편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게 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필요 때문이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이 사회로 확대될 수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개인은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 사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바)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얻고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며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인간중심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의 가치는 인간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생태계의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으므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RE100 캠페인'이라는 자발적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RE100 캠페인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자고 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갈수록 강화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인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하는 대상이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규제나 제도에 의한 강제적 이행이 아닌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과 함께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고객,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목적으로 전환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세계 218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유럽과 북미 기업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소비재, 금융, IT, 제조, 소재 등의 기업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 RE100 캠페인은 마케팅 차원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제 9 강 2021학년도 기출 1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인간들 사이에 정보 교환과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술문화', '문자문화', '소리', '인쇄매체' 등의 개념이 담겨 있는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기준 삼아 각각 구술문화를 반영하는 문학 텍스트, 문자문화, 특히 독서를 통한 경험을 반영하는 텍스트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기술을 통해 과잉연결된 현대 사회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들어 있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두 가지 개념의 성격을 정리하는 사실적 이해와 각각의 텍스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는 추론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다매체와 인터넷 기술로 변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달라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양상을 찾아내는 비판적인 이해력을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월터 옹의『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특히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특징을 인간의 정보습득 양상을 통한 사고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활동 중,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가 갖고 있는 매체적 특징과 연관하였다. 제시문 (나)는 문학 교과서에 실린 성석제의「황만근씨는 이렇게 말했다」의 일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황만근을 중심으로 구술문화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골랐다. 제시문 (다)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최재천의「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의 일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다. 특히 저자가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고 세계를 이해한 경험을 통해 문자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대 사회의 소통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인터넷 기술로 매개된 새로운 구술문화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은 제시문 (가)에서 소개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사고의 도구로 삼아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텍스트에 적용하여 이해해 보고, 나아가 인터넷 기술을 통해 매개된 새로운 구술문화가 중심이 되는 현대 사회의 소통 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가)에 나타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술문화가 갖고 있는 '상호작용성', '생활세계 밀착', '적극적 참여성', '집단적 공유성'과 문자문화가 갖고 있는 '기억으로부터의 해방', '사유능력의 확장', '논리적이고 분석적 태도', '고독', '풍부한 내적 경험' 등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황만근씨에 대한 상황, 제시문 (다)의 글쓴이가 책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얻은 경험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근거로 인터넷 기술을 통한 새로운 구술문화가 인간 소통의 중심이 되는 상황을 다룬 제시문 (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말한 월터 옹(Walter Ong)의 저서『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 수록된 글이다. 비록 이 제시문은 교과서에 이 텍스트가 실리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국어' 교과서와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의 성격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월터 옹은 그리스 신화와 음유시인을 중심으로 구술문화의 상호작용성이나 반복성, 첨가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상호작용성과 집단적 공유성 등으로 구술문화의 대표적 특징을 한정하였다.

제시문 (나)는 문학 교과서에 실린 성석제의「황만근씨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발췌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마을에서 황만근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씨가 갖고 있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된다. 황만근씨는 마을의 '구술문화'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논쟁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익숙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활세계의 경험에 가장 밀착되어 있으며, 그 인물 자체가 마을을 상징한다고 할 만큼 집단적 공유성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학생들은 이 텍스트 속에서 전형적인 구술문화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최재천의「과학자의 서재」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그동안 자신이 고민했던 세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명쾌하게 설명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는 문자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인 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학생들은 이 텍스트 속에서 전형적인 문자문화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과잉 연결 시대'라는 제재를 통해 쓴 학생의 글을 바탕으로 대폭 재구성하였다. 특히 인터넷 기술을 매개로 달라진 매체 환경 속에서 인간의 소통이 새로운 구술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고, 현대 사회의 소통 양상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뉘앙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글에서 학생들은 현대 사회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달라진 소통에 대해 앞선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개념 구분을 중심으로 한 매체언어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평가기준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평가기준

1. 학생들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가지 개념,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핵심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에서는 구술문화적 성격을, 제시문 (다)에서는 문자문화적 성격을 찾아내어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인터넷 기술 이후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드러난 구술문화의 속성을 찾아내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의 두 개념을 각각 (나)와 (다)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40%, (라)에 제시된 현대 사회에 있어 인간 사이의 소통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5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문제는 (가)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나)와 (다)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 그리고 (라)에 제시된 인터넷 연결로 매개된 구술문화가 중심이 되는 현대 사회의 소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것이므로, 구술문화의 성격을 (나)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다)와 매칭시키지 못하거나 (가)에 제시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나), (다)를 분석하는 경우는 감점한다. 또한 (라)에서 인터넷 연결로 매개된 현대 사회의 소통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한 복합적인 매체 언어의 양상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앞선 분석을 통해 확보된 관점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는 감점한다.
3. 제시문 (가)에 제시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각각 (나)와 (다)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부

분을 채점할 때 아래와 같은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구술문화'를 (나)에 '문자문화'를 (다)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의 내용은 (가)에 설명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나)와 (다)에 적용할 때 연결 가능한 단서들을 담고 있다.(배점 40%)

	제시문 (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단서	**제시문 (나), (다)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요소**
제시문 (가)에 나타난 '구술문화'의 성격	"말의 효과적인 사용"	소설 속에서 황만근을 중심으로 사투리나 대화가 잘 재현된 것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훨씬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화" "눈앞의 상대방과 열정적으로 논쟁하는 것"	황만근이 어떤 상황에든 참여하여 말을 통해 논쟁을 종식 시키는 것
	"인간의 생활세계에 더 밀착"	황만근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생활세계에 참여하는 것
	"구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연결" "말은 사람들을 굳게 결속하는 집단을 형성"	황만근의 노래에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는 것 마을 사람 모두가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고 그를 찾는 것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문자문화'의 성격	"문자문화를 통해 인간의 사유능력이 확장"	글쓴이가 갖고 있던 삶의 의문에 대해서 책을 읽고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 것
	"눈앞의 세계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	글쓴이가 책을 읽고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여 명쾌하게 설명되었던 것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고독하고도 능동적인 활동" "인간의 내적 경험은 풍부"	글쓴이가 오래된 의문들을 책을 읽으며 풀어내고 새벽에 황홀한 느낌을 가졌던 것

위의 표 상 (가)에서 찾아낸 단서들을 (나), (다)를 읽어내는 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채점의 기준으로 한다. 비록 제시된 과제는 아니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속성을 '비교'하거나 교차하여 새로운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채점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4. 제시문 (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일단 (라)에 제시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달라진 소통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인간 사이의 소통은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소리, 문자, 영상 등의 복합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매체언어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앞서 (가)와 (나), (다)를 통해 확보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예상되는 학생들의 관점은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배점 50%)

제시문 (라)를 바라보는 관점	**관점에 대한 근거**
(1) (라)에 제시된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소통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현대 사회에 새로운 인간의 소통 양상이 (가)와 (나)에 나타난 구술문화나 문자문화의 성격을 이미 충분히 실현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

(2) (라)에 제시된 인터넷 연결로 매개된 인간 소통이 (가), (나)에 제시된 구술문화의 특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	현대 사회에 새로운 인간의 소통 양상이 주로 인간의 구체적인 연결이 아닌 인터넷상의 연결이기 때문에 (가), (나)에서 제시된 구술문화의 성격을 결핍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
(3) (라)에 제시된 인터넷 연결로 매개된 인간 소통이 (가), (다)에 제시된 문자문화의 특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	현대 사회에 새로운 인간의 소통 양상이 주로 인간의 구체적인 연결이 아닌 인터넷상의 연결이기 때문에 (가), (다)에서 제시된 문자문화의 성격을 결핍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
(4) 그 외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 구술문화적 성격과 문자문화의 성격을 절충하는 관점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측면과 절충적인 지점을 잘 연결하고 그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

이 부분은 학생의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묻는 부분이므로, 학생이 어떤 관점을 택했다는 사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배점된 50% 중에서, 제시문 (라)에 드러난 현대 사회 인간 소통의 양상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10%), 제시문 (가)와 (나), (다)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판적인 입장을 얼마나 명확하게 세웠는가 (20%), 그리고 그 입장의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가(20%)에 의거하여 채점한다. 또한, (1)~(3)의 관점 외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절충적인 관점을 통해, 학생이 명료성과 타당성, 창의성을 띤 답안을 작성한 경우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다.

5.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배점 10%)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마), (바)를 통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 과목과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입장,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정 중 <정치와 법, 세계지리, 사회·문화>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과목에서 배우는 "외부 효과"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 평가,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외부 효과를 설명하고, 외부 효과의 결과로써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 외부 효과와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하여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결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의 자연관에 관한 내용이다.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추구하는 관점을 설명하고 이들이 서로 상충됨을 제시한다. 또한 두 자연관의 한계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제시문 (사)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운동을 다룬 사례(RE100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당 운동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6.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사)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에 50%를 (바)에 제시된 대립하는 자연관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사)에서 제시된 캠페인의 의의를 논하는 부분에 40%를,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7.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긍정적)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 효과: 제시문 (사)에서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 혹은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마)에서 설명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 ※ 작성자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긍정적 외부 효과로 설명한 것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외부 효과의 적용 없이, 환경오염이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단순한 설명만을 한 경우에는 더 낮은 점수를 부여.	20
	(긍정적) 외부효과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 제시문 (사)에서 설명하는 RE100 캠페인의 동기는 충분한 숫자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에 있음. -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주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 (마)의 설명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숫자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됨.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양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됨. - 결국 (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보다 상품(신	15

		재생에너지)이 과소하게 소비됨.	
	사례의 의의	-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 제시문 (사)의 RE100이라는 캠페인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림. 즉 (마)에서 설명하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 - 사례의 의의: RE100이라는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이나, 소비자의 직접적 대가 지불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외부 효과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작성자에 따라서는 제시문 (사)에서 설명된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이익 발생, 마케팅 효과 등)로 인해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비효율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	15
제시문 (사)로 제시문 (바)를 분석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한계	-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의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은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근간이 되었음 -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① 생태계 전체의 존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② 인간이 자연을 착취할 수 있음 ③ 무분별한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작성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한계를 제시할 수 있음.	10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의 한계	- 생태중심주의의 의의: 생태계를 도구의 관점이 아닌 존중 받 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 환경 보호의 인식. - 생태중심주의의 한계: ① 인간의 이익 추구를 제한함 ②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대상에 무생물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 ③ 인간의 환경에 대한 선한 개입을 막을 가능성도 있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작성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한계를 제시할 수 있음.	15
	두 자연관의 한계를 극복	- 제시문 (사)의 RE100캠페인은 이러한 두 자연관의 의의를 지킴과 동시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한계를 극복: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하여 기존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 -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의 한계를 극복: 기업의 이익 추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지역사회, 고객,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개선된 경제성이 수익에 기여함.	15
글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생활세계의 활동에 있어서 성격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제시문 (나)의 황만근은 '구술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마을 안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밀착해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황만근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재를 깊이 느끼게 된다. 이처럼 황만근은 바로 마을 사람들과의 일체감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경험과 정서를 반영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다)에서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새벽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고민이 가지런히 명쾌하게 설명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자문화에서 인간은 읽기와 쓰기를 통해 눈앞의 세계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읽고 쓰는 것은 고독하지만,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이러한 차이를 통해, 제시문 (라)를 보면,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소통은 두 문화가 섞여 있는 복합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직접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온전히 혼자일 수 없다. 구술문화적인 상호작용도, 문자문화적인 고독도 아닌, 어중간한 소통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연결을 통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술문화의 장점이나, 문자문화의 장점 모두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763자)

[문제 2]

(사)의 사례는 (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부 효과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바)의 두 자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

(사)에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에 따른 환경 보전의 효과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릴 수 있다. 이는 (마)의 긍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마)에서 설명하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일부 기업들만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보다 적은 양의 신재생에너지가 소비되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나 직접적인 대가의 지급 없이 경제주체가 (마)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에서는 대립되는 두 자연관의 의의와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태계 전체의 존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하고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간의 이익 추구와 대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사) 사례는 이러한 두 자연관의 의의를 지킴과 동시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함과 동시에 이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인간과 생태계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23자)

2026 홍익대 파이널

제 10 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2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라)를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800±100자)

(가)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라고 생각하며 그 근거로 진화론을 꼽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윈은 생물체의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또한『종의 기원』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하여 유명한 것이 바로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이다. 1835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해안에서 1,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 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나)

(나-1)

"네. 아이가 둘 있었지만,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친구, 귀화*하고 나서 더 힘들어했던 건 확실해요. 회사에서 진급하는 데도 외국인으로 분류하더래요. 나는 당당히 한국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면서 진급에 누, 누락시켰대요. 아내 친정집에서도 외톨이고, 시장을 가도 가난뱅이 네파리 놈, 소리까지 듣구요, 그러니까 더 견딜 수 없었겠지요. 네팔로 가기 전에 나보고 그래요. 여기선 귀화 아무 소용도 없다, 껍데기를 다 벗겨서 한국 사람 껍데기로 바꾸기 전엔 아무도 한국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니 귀화하려면 차라리 껍데기 바꿀 길을 찾아봐라, 하고 말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지독해요. 색깔대로 점수 매겨요. 같은 네팔 사람 중에서도 그 친구 유난히 얼굴색 검었는데요,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얼굴색으로 등급 다르게 쳐요. 여기선요."

"안 그런 한국 사람도 많아."

로리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나-2)

쿤**은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에 나이키 점퍼를 입고 있다. 동대문시장에서 산 짝퉁이지만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 그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흰 아르레족(네팔의 여러 부족 중 하나로 아리안계에 속함)이라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니 얼핏 미국 사람처럼 보인다. 하긴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염색을 했을 테지만. 언젠가 명동에 다녀온 그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한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너도 얼굴만 좀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 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 쿤: 25세의 네팔인으로 4년째 한국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다) 근대에는 단순히 대립하는 두 범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이 에 철저한 위계가 존재한다. 이성/감성, 정신/육체, 문명/자연, 제국/식민지, 남성/여성, 백인/유색인, 중심/주변 등이

그러하다. 이 범주들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우월하며, 전자가 후자를 지배한다. 후자는 전자가 되길 원하지만 결코 될 수 없다. 이는 전자에 대한 후자의 저항을 유발한다. 이런 이분법적 범주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잡종(雜種, hybrid)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양분화된 체계에 위험한 존재이고, 배척의 대상이 된다. 제국/식민지, 제1세계/제3세계, 개발/저개발, 중심/주변과 같은 공고한 이분법적인 범주로는 북미나 유럽에 사는 교포 2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서구 중심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인 서구/비서구, 백인/유색인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균열을 내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나 심성이 여자 같은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가 터부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라) 유행은 선도 집단을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좇는 사람에게는 사회화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따라서 모방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 준다. 모방은 이미 검증이 완료된 내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창조적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도 쉽고 순조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모방은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선사한다. 즉, 모방이란 측면에서 유행은 집단이 개인에게 특정한 행위 양식을 전수해 줌으로써 선택의 고통과 비용,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 주면서 동시에 그 유행에 동참하는 집단의 내부자로 그가 존립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장치가 된다. 그러나 유행은 동참자가 많아지는 순간, 더는 '개성'의 표현이 되지 못한다. 독특하고 강렬한 매력을 지닌 유행일수록 전파력이 크고, 또 그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 본래적 의미를 소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행은 발생 초기에는 공유자들 간에 구심력을 발휘해 사회화에 성공하면서 차별화를 드러내는 '개성'의 표현이 된다. 하지만 유행을 좇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결국 쉽사리 몰개성적인 사회, 획일화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에 기술된 사회현상 탐구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에 나타난 오류를 찾아 각각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아)에 기술된 D시의 출산장려금 시범사업의 분석결과와 E시의 출산장려금 정책 도입 결정을 평가하시오.

(800±100자)

(마) A시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야 버스 노선을 정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이 사용한 휴대 전화 통화량 자료 30억 건, 심야 택시 승하차 자료 500만 건, 시간·요일별 유동인구 자료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화된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데이터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데이터 해석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여야 한다.

* 표본: 모집단 중에서 실제 조사를 위해 선택한 집단

(바) 1936년 미국의 잡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The Literary Digest)'는 대통령 선거 후보인 공화당의 랜든 후보와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 명부를 활용해 잡지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약 240만 명 중 랜든의 지지율은 57%, 루스벨트의 지지율은 43%를 기록하여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랜든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설문조사와는 정반대로 나타나, 루스벨트 후보가 6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본으로 추출한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면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 모집단: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사) B시는 교통 법규 위반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해 왔다. 다만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B시는 교통안전 교육이 교통 법규 위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들과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집단 사이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를 비교하였더니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를 근거로 B시는 안전 교육이 교통 법규 위반 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언론사가 조사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더니,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운전경력이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들보다 세 배 길다는 것이 밝혀졌다.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운전자들은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대부분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아) 2019년 C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C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3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절벽이라고 부른다. 인구절벽은 노동력 부족,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와 노년 부양비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C국에 위치한 D시와 E시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하였다.

D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에 시청직원 중 100가구를 선정하여, 50가구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출산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 시행 후 3년간의 출산율을 비교하였더니 출산장려금을 받은 가정의 출산율은 가구당 1.92명으로, 장려금을 받지 않은 가구의 0.84명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이에 D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3년은 D시가 추진한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가정한다.) 2020년, E시는 D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참조하여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C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D시와 E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면적, 인구,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분포, 교통 및 교육 여건, 인구의 연령분포 등 나머지 요인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19년 D시와 E시 현황 비교자료>

	C국	D시	E시
인구 10,000명당 산부인과	2.3개	4.1개	0.7개
인구 10,000명당 보육시설	12.4개	18.9개	7.3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4.5건	4.9건	2.7건
청년고용률**	40.1%	63.7%	31.2%

출처: C국 통계청

* 생산 연령 인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의 청장년층 인구를 말함.

** 청년고용률: 청년 인구 중 취업자 비율

제 10 강 2021학년도 기출 2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현대사회는 인종이나 계층, 문화나 종교 등 다양한 층위들에서 서로 다른 변이체들이 다채롭게 공존하고 있다. 이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평등한 인식이 전제된 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관용, 화합과 공존의 문화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태도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개별 주체나 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로써 상생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들은 논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양성'과 '공존'이란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고교 교과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답안 평가의 핵심은, 제시문 (가)에서 논제를 추론하여 이 논제가 문제적인 이유를 서론에서 서술하였는지, 제시문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라)를 분석하여 본론을 구성하였는지, 서로 다른 변이체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 공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 (가)에서 추론한 자연계에 나타난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나), (다), (라)에서 제시된 사회적 현상이나 사람들의 인식체계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평등이 전제된 변이 간 다양성의 인정이 상호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됨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물계에서 변이의 다양성은 종의 유지나 확산, 진화에 밑바탕이라는 것

② 변이들 간에는 우열이 없고, 따라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이나 나머지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

제시문 (나)의 주제는 인종 간의 차별(우열)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부색의 차이, 국적의 차이에 따라 이주민 노동자를 비롯한 다문화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나 처우에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함에 대한 이해

② 특히 네팔 등 동남아와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임.

제시문 (다)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쪽의 우위가 전제된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

② 잡종(하이브리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문제점

제시문 (라)의 주제는 획일성의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행을 따르는 일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주체를 구분짓는 것으로서 개성의 표현이 될 수 있음.

② 그러나 몰개성적이고 무분별한 유행에의 편승은 획일화된 문화를 낳을 수 있음.

3. 채점 기준

■ **기본평가기준**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평가기준**

6.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의 관점을 이해하여 핵심 논제를 끌어내고, 핵심 내용을 이용하여 (나), (다), (라)에 담긴 주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라)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의 논지에 대한 이해 25%, (나)에 대한 분석 15%, (다)에 대한 분석 15%, (라)에 대한 분석 15%, 분석 내용의 종합 2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7.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의 내용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	
25%	- 생물 종의 번성에 중요한 것은 생물체 변이의 다양성이다. 변이의 다양성은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여 생물 종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 다양한 변이체들 간에는 우열이 없다. - 경쟁보다 공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 생물 종 번성의 원동력이 된다.

8.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제시문 (나)의 분석	
15%	- 제시문 (나)에는 인종과 국가의 경제적 상태를 근거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한국인의 태도 때문에 고통 받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이는 다양함이 생물체의 유지와 확산, 즉 진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변이체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는 (가)의 관점에 배치되는 태도이다. - 다문화사회의 사회 통합에 저해되는 관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제시문 (다)의 분석	
15%	- 제시문 (다)는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의 병폐를 지적한 글이다. 이성/감성, 문명/자연, 서구/비서구 등의 대립 구도에서 전자를 우위에 놓고 후자를 주변화, 혹은 종속화시키는 이분법적 사고는 (가)의 시각에서 볼 때 변이체 간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위배된다. 즉, 이런 인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등이 전제된 다양성의 발현을 억압하므로, 종국적으로는 인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 이분법적 사고 체계에는 잡종, 즉 하이브리드의 설 자리가 없다. 또 이런 사고체계는 잡종을 배타적으로 인식하므로, 결국 제시문 (가)의 시각에서 볼 때 다양성을 억압하는 사유로서 비판될 수 있다.

10. 제시문 (라)에 대한 분석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제시문 (라)의 분석	
15%	- 제시문 (라)에서는 개성 혹은 유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행이 그것을 좇는 사람이 적을 때에는 개성의 표현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그 유행을 좇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은 오히려 몰개성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획일화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문화가 획일화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라)는 제시문 (가)의 시각에서 보면 변이의 다양성에 역행하는 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 분석 내용의 종합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의 내용이 결론의 형태로 제시되어 논설문의 일반적인 체제를 갖춘 경우 글의 완결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분석 내용의 종합	
20%	-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때 다양성은 더욱 확산되며 그것이 문화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다.(제시문 가) - 그러나 인간의 우열에 대한 인식(제시문 나),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중간자에 대한 배척(제시문 다), 개성의 상실과 획일화(제시문 라)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양상들이다. - 인종적, 문화적, 계층적으로 다른 집단이나 개체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12. 문제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 3, 4번 채점 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설득력을 갖춘 답안이나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답안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

13.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문제 2]

1. 출제 의도

제시문 (마)를 통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인구문제와 해결방안"과 "저출산"을 주제로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현상의 탐구 과정에서의 자료수집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제시문 (바)와 (사)에 기술된 자료수집 및 분석 오류를 찾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에서 기술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을 측정한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정확한 자료수집 및 해석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충분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변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오류의 예이다. 제시문 (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의 예를 보여준다. 제시문 (아)는 제시문 (바)와 (사)에서 기술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정책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예이다.

3.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6. 제시문 (마)에 기술된 유의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오류를 찾아 설명하는 부분에 각각 20%, 제시문 (아)에서 기술된 D시의 출산장려금 시범사업의 결과와 E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에 각각 25%,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7.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바)	오류의 유형	-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적시	10
	판단 근거	- 당시에 전화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 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저소득층 상당수가 표본에서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0
제시문	오류의 유형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 적시	10

(사)	판단 근거		- 운전경력이 긴 운전자들은 안전 교육 이수의 필요성이 적어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서 교통 위반 건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 (5점) - 운전경력이 길수록 교통 위반이 줄어드는 경우 실제로 안전 교육 이수가 교통 위반 건수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서는 두 집단의 교통 위반 건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5점)	10
제시문 (아)	D시	오류 1	- (유형)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적시	10
			- (판단 근거) 시청직원 으로만 이루어진 표본은 전체 시민의 특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음.	5
		오류 2	- (유형) 고려되지 않는 변수의 영향 간과	5
			- (판단 근거) 출산장려금 수령 이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5
	E시	오류 1	- (유형) 고려되지 않는 변수의 영향 간과	15
			- (판단 근거) E시에서는 산부인과(2점) 및 보육시설(2점)의 수가 적고 혼인건수(2점)와 청년고용률(2점)도 낮아 D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판단 근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D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가 E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2점)	10
전체			- 논리적 완성도	10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골자로 한 사회진화론적 오해를 비판하면서 변이들 사이에 우열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갈라파고스 핀치의 사례를 통해 변이의 다양성이 종의 유지와 번성에 유리한 방식임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사회 역시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지양하는 것이 그 유지와 번성에 유리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제시문 (나)~(라)는 이와는 배치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종이나 소속 국가의 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겪은 차별을 보여주는 글로서, 변이 간 우열을 부정하는 (가)의 관점에 배치되는 현상이다. (다)는 범주 사이의 위계를 전제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것은 변이 간에는 우열이 없다는 (가)의 관점에 배치될 뿐 아니라, 두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잡종이 배척되어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라)는 무분별하게 유행을 모방함으로써 개성이 사라지고 문화가 획일화되는 현상에 대

해 지적한 것이다. 이는 변이의 다양성이 생물 종의 번성을 가져온다는 (가)의 관점에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렇듯 (가)의 관점에서 (나)~(라)는 모두 비판적 독해가 가능하다. '생물계의 원리를 인간사회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는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인간도 자연계의 일부이고, 그동안 다윈 진화론의 핵심을 오독해온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비판하기에 핀치 새의 예는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핀치 새의 사례는 부리 모양에 따른 먹잇감과 서식지의 적절한 배분으로 다양한 종이 공존한 것이 결국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환경에 그들이 더 잘 적응하여 번성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897자)

[문제 2]

제시문 (바)는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오류의 예이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 명부를 사용하였는데, 당시에 전화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어서 저소득층 대부분이 표본에서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제시문 (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의 예를 보여준다. 운전경력이 긴 운전자들은 안전 교육 이수의 필요성이 적어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서 교통 위반 건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운전경력이 길수록 교통 위반이 줄어드는 경우 실제로 안전 교육 이수가 교통 위반 건수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서는 두 집단의 교통 위반 건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시문 (아)에서 D시의 시범사업은 전체 시민이 아닌 시청직원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 수령 이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처럼 D시는 출산장려금 시범사업의 설계 및 해석에서 제시문 (바)와 (사)에 나타난 두 가지 오류를 모두 범하고 있으므로 D시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E시에서는 산부인과 및 보육시설의 수가 적고 혼인건수와 청년고용률도 낮아 D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D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가 E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801자)